

<금융위원장>

<DGB금융 회장>

최종구-김태오 회동... DGB, 하이투자증권 인수 급물살

SPA 유효기간 3개월 앞두고
금융당국 찾아 인수인지 피력
긍정적 시그널 속 '빅딜' 기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하이투자증권 인수·합병(M&A)' 놓고 회동했다. 시장에서는 9월 DGB금융지주와 하이투자증권 간 주식 매매계약(SPA) 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회동이 '긍정적 시그널'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의 리스크로 발목이 잡혔던 인수전이 다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과 김 회장은 15일 단독 회동에서 하이투자증권 M&A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DGB금융의 숙원 사업인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취임 후 제1 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 자리에서 직접 인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동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의 문제로 중단됐던 인수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위해서는 금융위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GB금융은 지난해 12월 당국에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출했지만 1월 금융위로부터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후 심사는 중단됐다. 하지만 김 회장 취임 후 멈춰 있던 하이투자증권 인

수 작업에 재시동이 걸리게 됐다.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갖고, 다음 날인 6월 1일 취임 인사차 금감원을 방문해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 의혹 등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영정상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뤄진 윤석환 금감원장과의 만남에서 김 회장은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 타당성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심사 과정에서 김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고 7월 예정된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이 그에 대한 화답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이날 말 예정된 하이투자증권 인허가 재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시에도 직접 금감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 관계자는 "CEO 교체 이후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보완 서류를 포괄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DGB금융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대주주 변경심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올해 1분기 인수 작업을 마칠 예정이던 DGB금융에 CEO 리스크가 덮친 것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원이 위법 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 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걸림돌이 됐다. ▶6면에 계속
김보름 기자 fullmoon@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국민 방문을 위해 러시아로 향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文대통령, 러시아행... "남·북·러 3각협력 본격 추진"

19년 만의 국민방문
비핵화 지지확보·평화체제 구축
철도·가스·전기부터 협력 진행

러시아를 국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신(新)북방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도, 가스, 전기부터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분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 2박4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국민 방문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 대통령으로서 1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모스크바에 도

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을 방문해 하원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를 면담한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하원 연설은 우리 대통령으로는 사상 최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면담과 '한·러 우호친선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2일 문 대통령은 한러 정상 회담과 푸틴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민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3일은 모스크바에서 로스토프나도누로 이동해 2018 월드컵 한국·멕시코 조별 예선전을 관람하고 축구 대표단을 격려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양국 간 실질 협력 부분과 관련해 김현

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 △나인브릿지 사업 △한·러 혁신 플랫폼 강화 △한·러 의료 기술 협력 등 크게 네 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0일 러시아 언론과 가진 합동 인터뷰에서 "남북 간 경제 협력은 러시아와의 3각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공감했다"며 "우선 대표적 3각 협력이 빠르게 시작될 수 있는 사업은 철도, 가스, 전기 세 분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철도는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그 연결된 남북철도가 러시아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된다면 우리 한국으로부터 유럽까지 철도를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북한과 한국으로 공급되

고, 나아가 해저관들을 통해서 일본으로까지 공급될 수도 있다"며 "전기도 러시아에서 생산된 전력이 북한과 한국, 일본까지 공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과 미국 양측에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 제안한 '나인 브릿지' 구상과 관련해 "지금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역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는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전됐기 때문에 이번 9월의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양국 간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해 9월 남·북·러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월성 1호기 폐쇄 손실분 보상"

산업부,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발표... 신규원전 4기 백지화 추진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해줄기로 했다. 또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백지화 작업도 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원전) 후속 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아직 운영 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 중 월성 1호기와 관련해 한수원은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연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해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을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의 연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발표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분을 적법하게 보전해 줄 계획이다. 2015년에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은 월성 1호기의 연장운전 관련 비용으로 5600억 원이 투입됐다. 신규 원전 4기의 사업 종결과 관련해서는 영덕군(천지 1·2호기)에 지정된 전 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내달 말 관련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이미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 산업부의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해 내달 말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진 1·2호기 건설을 위해 산책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도 영덕과 동일한 절차로 해제 작업이 진행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계획 취소로 작간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제시한 원전 대체 희망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반지원금(발주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단가 인상을 추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민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2023년 이후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한 원전의 안정 운영 및 기자재·비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20년 이상 장기 가동 원전(올해 기준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조9000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자금(올해 2500억 원) 투입과 기업협력활용을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및 사업 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보험사 부동산PF 대출 1년새 5兆 급증

27곳 대출총액 20.8兆, 삼성생명 4.9兆 1위... 부동산 경기 하락세에 경계 목소리

보험업계가 부동산 황황세를 틈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매년 5조 원가량씩 PF 대출 잔액이 늘어 올해 3월 기준으로 잔액은 21조 원에 달했다. ▶관련기사 6면

보험사들은 대부분 보증부 PF대출로 평균 연체율이 0%대를 기록, 안정적인 대출관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PF 대출이 2010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촉발시킨 주범이었다는 이유로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움직임에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투데이가 21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보험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총 2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총액은 20조8017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말 대출 총액이 11조3671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년 새 약 10조 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3월 말 기준 4조9315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생명은 2015년 말 1조8539억 원을 시작으로 2016년 3조4533억 원, 2017년 4조7671억 원 등 매년 1조 원 이상씩 부동산 PF 대출을 늘려왔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각각 2조2516억 원과 2조2394억 원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삼성화재는 올해 처음 2조 원대를 넘겼고, 메리츠화재는 2016년 말 이후 2조 원 이상의 부동산 PF 대출을 유지해왔다.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부동산 PF 규모를 2015년 말보다 6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보생명은 2015년 말 1741억 원에서 3월 말 기준 1조1149조 원의 대출 잔액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같은 기간 1338억 원에서 8009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줄인 보험사도 있다. DGB생명과 케이디비생명은 각각 2015년 말 기준 200억 원과 4084억 원의 대출 잔액을 보유했다가 최근 그 규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DGB생명은 3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없고, 케이디비생명은 3158억 원으로 감소했다. 또 동양생명도 같은 기간 8103억 원에서 6144억 원으로 축소했다. 이 밖에 IBK연금, KB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도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보험사들은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확대한 만큼 안전성 관리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해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 대출 채권 현황에 따르면,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0.45%였지만 부동산 PF 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29%로 확인됐다.

정용욱 기자 dragon@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보험사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말	2018년 3월 말
삼성생명	18,539	34,533	47,671	49,315
삼성화재	7,231	14,402	19,665	22,516
메리츠화재	17,903	23,205	23,458	22,394
DB손해보험	7,039	8,851	14,715	13,739
교보생명	1,741	6,477	9,900	11,149

* 출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금융감독원

현대·기아차, 美 J.D.파워 품질평가 1~3위 '첫 싹쓸이'

〈시장조사업체〉

현대차 렉서리 라인 제네시스 선두
기아차 2위·현대차 3위 올라
SUV 부문 '투싼' '쏘렌토' 선전
美시장 영향력 확대 추진력 얻어
獨 포르쉐 4위·美 포드 5위...



기아차와 현대차가 미국의 자동차 평가기관 J.D.파워의 신차 품질 조사(IQS)에서 톱3를 휩쓸었다. 독일 프리미엄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를 앞섰고,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마저 눌렀다.

20일(현지시간) J.D.파워는 2018 운전자 초기 품질 조사 결과에서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기아차와 현대차가 나란히 2~3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현대차그룹의 양산차 브랜드 3곳이 1~3위를 석권했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이날 제네시스의 신차 품질 조사 1위 소식을 전하며 "현대차그룹의 신차 브랜드가 상위 3위를 싹쓸이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층 더 미국 시장에서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보도했다.

독일 프리미엄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와 미국 포드는 4~5위에 이름을 올렸다. 6위에서 10위까지의 쉐보레, 링컨, 렉서스, 램(RAM-크라이슬러

트럭 브랜드), 닛산 순이었다.

톱10에 현대차그룹 브랜드 3곳이 전부 포함됐고, 일본차 2곳(렉서스, 닛산), 독일차 1곳, 나머지는 미국 또는 다국적 브랜드였다. 11~20위는 BMW, 캐딜락, 미니, 인피니티, 메르세데스-벤츠, 부익, 지프, 도요타, 닌지, 어쿠라 순이었다.

SUV 부문에서도 현대차그룹은 선전했다. 현대차 투싼이 소형 SUV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기아차 쏘렌토 역시 중형 SUV 부문 품질평가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이나 크루즈 컨트롤, 주차지원시스템(PBS), 블라인드스팟 모니터링 등 시스템 성능을 가능케 하는 항목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올 2~5월 출고된 지 90일 이상 된

2018년형 신차 구매자와 리스 구매자 7만5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차 평가항목 233개를 바탕으로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테슬라, 알파로메오, 피아트, 마세라티, 스마트, 페라리, 벤틀리, 롤스로이스 같은 브랜드는 고객 수가 적은 만큼 표본도 적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포브스는 "20년 전만 해도 한국차는 일본차, 디트로이트(미국 양산차), 유럽차를 사기에 지갑이 열거운 사람들이 이웃거리는 모델이었다"면서 "이제는 도요타, BMW가 최소한 차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배워야 할 게 생겼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초기 품질 최악의 브랜드는 재규어와 랜드로버, 볼보로 나타났다.

배수경 기자 sue6870@·김준형 기자 junior@

檢, '기업 봐주기' 조준 압수수색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단 도마위



20일 오후 검찰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물품을 차에 싣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보은성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퇴직 간부 기업 특혜 채용, 신세계·네이버 등 사건 부당종결 혐의 등
막강한 법집행 권한 따른 폐단 드러나... 대대적 손질 불가피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퇴직 간부의 기업 특혜 채용 및 사건 부당 종결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으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위의 독점 법 집행 권한인 전속고발권의 폐해가 하나둘씩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정부 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해당 기업 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 사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공정위가 신세계·네이버 등 기업 수십 곳이 주식 소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기업을 제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 지은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공정위의 독점 법 집행 권한인 전속고

발권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위의 일부 임직원들이 전속고발권을 기업 측과 유착의 빌미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전속고발권을 악용할 수 있다며 전면 폐지를 촉구해왔다. 이에 작년 6월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해 8월 '공정거래법집행체계 개선 TF'를 출범시켜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후 공정위는 2월 '법집행체계 개선 TF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행·유동·대리점법, 이른바 유동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담합 등 전속고발권인 경우 TF 위원 간 이견으로 전면폐지·보완유지·선별폐지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조만간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위기의 카풀시장' 규제 벽에 가로막혀 고사 직전

승차 공유 스타트업 '풀리스' 사업 제동 경영난 겪다 결국 대표 사임·구조조정
4차산업혁명추진단 중재도 무산...업계 '해의업체에 시장 먹힐라' 규제개선 촉구

승차 공유 스타트업 '풀리스'가 국내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김태호 풀리스 대표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택시업계의 반대에 가로막힌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우버, 그랩 등 관련 서비스가 승승장구하고 있어 국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풀리스는 김태호 대표 사임과 함께 직원 70%를 내보내기로 했으며, 사업모델 재검토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개선되지 않아 실적이 악화하면서 경영난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풀리스는 지난해 11월 하루 24시간 중원하는 시간을 택해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 서비스를 도입하려 했으나 당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법률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이에 풀

리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유사 카풀이 가능한 경우를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폭넓게 카풀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풀리스는 2016년 5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10월에는 2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업계에 이질 선두주자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현행법 탓에 자유로운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올해 2월 카카오택시 경쟁 스타트업 '택시'를 인수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준비하면서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카풀 규제를 주제로 한 해커톤(끝장토론)을 준비하며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주무부처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택

시업계가 해커톤 참석을 거부해 중재도, 규제 개선도 모두 무산됐다.

이에 카풀업의 성장을 막는 국내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우버조차 국내 규제에 막혀 현재 고급택시를 표방하는 '우버택시'만 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인 풀리스는 정부 규제로 심야버스 사업 대신 전세버스 서비스로 전환했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카풀이 대중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우버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중국 등에서 '우버엑스', '우버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랩은 동남아, 디디추싱은 중국 시장을 각각 장악하며 급성장하고 있고 프랑스 업체인 '블라블라카' 역시 전 세계 22개국에서 4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카풀 시장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블루오션임에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난공불락의 성이 되고 있다"며 "국내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 카풀업계는 고사하고 결국 나중에는 해외 업체들에 국내 시장을 내주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www.kogas.or.kr


바르게 딛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번호

1644-0001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기형적 지배구조”... 韓 재벌에 쓴소리

OECD 한국경제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기형적인 재벌 지배구조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개별 기업들이 각 기업의 주주가 아닌 그룹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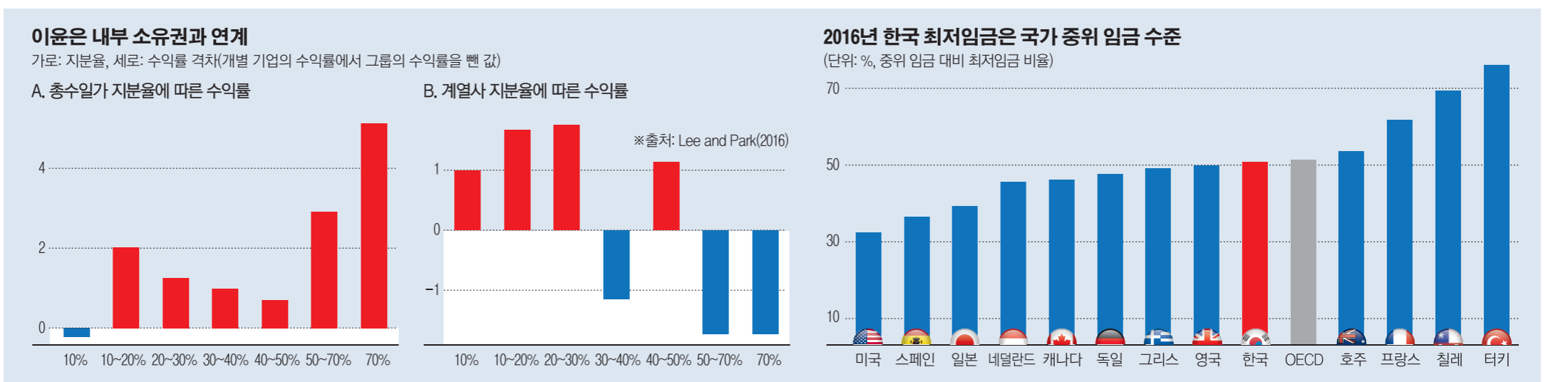
OECD는 20일 발간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재벌이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도 여전히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긍정적인 역할에도 우려가 있다. 기업가정신 퇴색, 불공정 거래 관행, 자본에 대한 잘못된 분배 등 부정적인 영향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랜달 존스(Randall S. Jones)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한국의 창업주 일가들이 어떻게 수십 개 계열사에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벌 일가의 직접 소유 지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그룹 계열사들이 재벌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수익을 몰아주면서 그룹 내 자본이 특정 계열사로 쏠리고 있다. 존스 담당관은 이를 ‘터널링(tunneling)’으로 표현했다.

그는 “계열사를 통해 구매를 많이 하는 회사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 계열사를 통해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은 수익률이 낮다”며 “또 재벌 일가가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계열사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지만, 계열사가 지분을 많이 소유한 회사들은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룹에 속한 각 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자신의 주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그런데 주주를 위해 일하는 대신 그룹 전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OECD는 이 같은 지배구조로 인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한국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존스 담당관은 “경쟁을 통해 기업들이 생존에 집중하게 되면 반생산적이고 비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며 “또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사외이사의 역할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들이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할 수



대기업 순환출자 구조 ‘터널링’ 표현 계열사들, 오너 회사에 수익 몰아줘 주주 이익 침해·기업주가 저평가 초래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감소에 영향... 매년 정책 결정 전 면밀한 관찰 필요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경영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는 걸 도와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OECD는 국내 경제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조언을 남겼다. OECD는 보고서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인 공공부문 채용 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존스 담당관은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2020년 1만 원 인상을 목표로 한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 방향에 대해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한국의 거시경제 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최근 저성장장이 이어졌던 한국 경제가 세계 교역량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추가경정예산 등에 힘입어 2017년 3.1% 성장하며 반등했다고 평가했다. 또 건설투자 둔화에도 세계교역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3.0%,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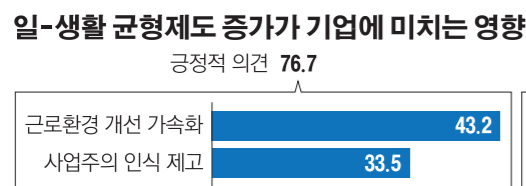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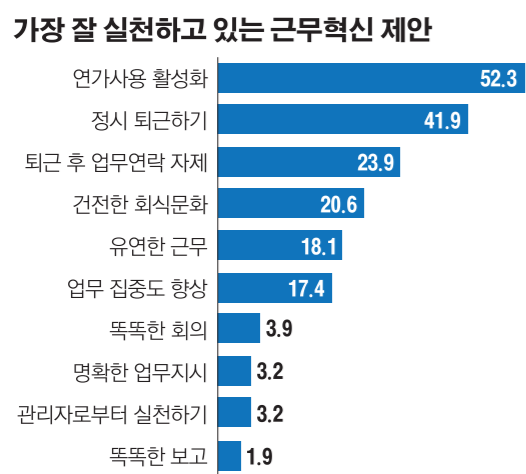
거시적 관점에서는 한국이 고령화 등 미래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더 넓은 영역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 부문으로 지출 규모 재분배는 적절한 조치이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출 규모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 방안으로는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계부채, 자본 유출 등 금

융안정 리스크와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려는 금리를 당장 인상해야 할 적절한 명분이나 설득력은 없다”라고 봤다.

이 밖에 OECD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 해결 과제로 교육교사 자격 기준 강화와 사립 교육시설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근로 시간 단축, 출산휴직 보장 등을 통한 여성고용 확대를 제시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및 직업훈련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대기업 “눈치보지 말고 휴가 쓰세요”

근무혁신 실천 1위 ‘연가 사용 활성화’... ‘관리자 실천’ ‘유연근무제’는 미흡

주요 대기업들은 정부의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연가사용 활성화’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자부터 실천하기’나 ‘유연근무제’ 등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근무혁신 10대 제안은 일·생활 균형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6년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장시간 근무관행,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의 3대 분야 및 하위 10대 제안으로 구성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600대 기업 일·생활균형 제도 현황’ (155개사 응답)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10대 제안 중 올해 ‘연가 사용 활성화’ (52.3%)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정시 퇴근하기’ (41.9%)와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23.9%), ‘건전한 회식문화’ (20.6%) 순으로 답했다.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가장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40.6%), ‘유연한 근무’ (31.6%), ‘독특한 회의’ (26.5%) 등을 꼽았다.

또한 올해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정시 퇴근하기’ (61.9%), ‘업무 집중도 향상’ (34.2%), ‘유연한 근무’ (23.9%)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실시 중인 곳은 53.5%로 절반이 넘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 (83개) 중 ‘시차출퇴근제’ (66.3%)를 가장 많이 도입했고 ‘탄력근무제’ (48.2%), ‘단축근무제’ (19.3%), ‘재택근무제’ (9.6%)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직무만족도 향상’ (69.9%), ‘근로시간 단축’ (36.1%), ‘생산성 향상’ (27.7%) 등의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 제도 영향으로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 가속화’ (43.2%), ‘사업주의 인식 제고’ (33.5%)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76.7%)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제도 실시 기업에 대해 지원금 인상·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56.1%)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도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23.2%), ‘대체인력 채용 지원 강화’ (15.5%) 등을 꼽았다. 문선영 기자 moon@



사시사철 아름다운 농촌 농협이 함께 합니다

농협과 함께하는 2018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농업인의 삶의 터전이자 국민의 심터가 되는 우리 농촌! 농촌이 아름다워질수록 농업인도 국민도 행복해집니다. 농협은 마을 벽화 그리기, 꽃밭조성, 노후주택 개·보수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언제나 찾아가고 싶은 농촌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정치권 개입” “포피아 사유화” 포스코 차기 회장 인선 논란

〈포스코+마피아〉

‘CEO 승계 카운슬’ 비공개 논의
“靑 불개입에 포피아 마음대로?”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장도

포스코 차기 회장 인선을 비공개로 주도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이하 카운슬)’에 정치권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포스코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놓았지만, CEO 선출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정치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이번에는 정치 권력의 입김이 제대로 배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에서는 포스코의 CEO 선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CEO 승계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는 사람을 CEO로 앉히는 일은 매년 반복됐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업이 포스코와 KT였지만 이번엔 오히려 인사에 개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들(KT·포스코)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포피아(포스코+마피아)가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으니 우리 마음대로 회장을 뽑으면 된다”고 오만한 채 포스코 사유화를 지속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정당 정인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출신 후보’가 회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 권력에 기대어 회장이 된 후에 정권이 바뀌면 중도 퇴진을 되풀이하는 포스코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정치 권력의 입김이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포스코 출신의 역량 있는 분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코 미래 50년을 위한 3차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포스코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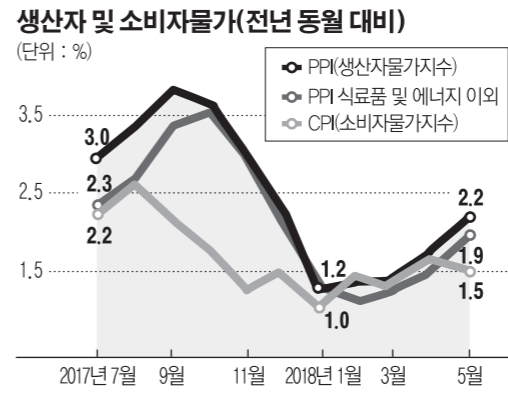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의 최대 문제는 여의도 투자자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같은 거대 투자자가 사회적 책임에 가치를 두지 않고 수익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다불어민주당 권철승 의원(오른쪽), 정부 비서관인경제정의연구소 대표(가운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CEO 승계 카운슬에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유가 급등에 생산자물가 2%대

5월 2.2% 상승...5개월만에
식품·에너지 외 근원인플레이도
1.9% 올라 2%선에 근접
유가 추가 상승, 환율·농산물
소비자물가 영향 줄지 주목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 국제유가 급등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다만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인플레이 상승의 전조일지 지켜볼 일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2% 오른 104.40(2010년 100 기준)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12월(2.2%) 이후 처음으로 2%대 오름세를 기록한 것이다. 전월 대비로는 0.2% 올라 2월(0.4%)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 근원인플레이도 할 수 있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올 1월 1.2%를 기록한 이래 5개월째 1%대 흐름을 이지만 2%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다.

이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5월 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74.41달러를 기록해 2014년 11월(77.09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6.7% 급등한 것으로 작년 2월(88.4%)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전월 대비로도 9.0% 올라 전년 11월(9.5%)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물 제외 공산품, 전력 가스 및 수도, 서비스가 일제히 상승했다(전월 대비 기준, 이하 동일). 작황 호조와 본격 출하가 시

작되면서 참외(-35.6%)와 감자(-44.6%), 배추(-21.4%)의 하락 폭이 컸다. 반면 행락철을 맞아 돼지고기(7.3%)는 올랐다.

유가상승 여파에 나프타(11.7%), 경유(5.9%), 휘발유(6.7%) 등 석탄 및 석유제품과 부타디엔(10.8%) 등 화학제품이 올랐다. 반면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 심화로 TV용 액정표시장치(LCD, -5.7%)를 중심으로 한 전기 및 전자기기는 하락했다.

음식점 및 숙박(0.4%)과 운수(0.2%)는 올랐고, 전력 가스 및 수도는 산업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0.3%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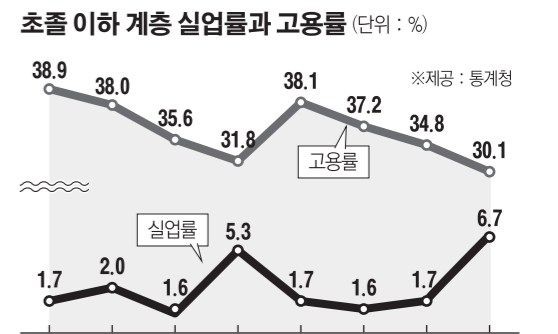
한은 관계자들은 “유가 상승에 공산품 가격이 오르는 것이 생산자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공산품 비중이 큰 근원생산자물가도 같은 이유에서 올랐다”며 “유가는 물론 환율, 농산물 작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 품목과 차이를 보이는 데다 선행성 역시 약화했다”며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소비자물가에 꼭 1대 1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저학력자에게 더 무서운 ‘고용 한파’

1분기 초·중졸자 실업·고용률 최악...전체 수치는 전년 수준



저학력자가 고용 한파를 더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실업·고용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령 노인이 밀집된 초등학교 졸업 이하 계층의 올해 1분기 실업률과 고용률은 역대 최악이며, 중졸 실업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초졸 이하 계층의 실업률은 6.7%로 전년(5.3%)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초졸 이하 실업률이 6%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중졸 계층의 1분기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10년 1분기(4.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고졸 실업률(4.4%)도 2016년 1분기(4.6%)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

다. 고졸 고용률(61.5%)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1분기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4.3%, 59.6%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저학력자에게 고용 한파가 더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저학력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 약화는 최근 저소득 가구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용충돌자의 사정과 관련이 있다고 통계청은 보고 있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가 뚜렷한 임시·일용직 중 상당수가 고용충돌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 지표가 크게 약화한 것.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1년인 임시직은 2016년 4분기 이후 매 분기 10만 명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은 지난해 4분기 때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5만 7000명 줄며 감

소 폭을 키웠다. 통계청 관계자는 “초졸 이하 인구 구성을 보면 50대 이하는 많지 않다고 봐야 한다”며 “임시·일용직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이 저학력자 고용 지표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감장은 지난달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1분위 가구 근로소득 감소와 관련 “추경으로 1분위 가구주 중 70세 이상 비중이 30% 중년에서 40% 초년대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과거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뒀다”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이번엔 ‘폭락’하는 계란값, 정부 대책은 ‘...’

30개 기준 평균 3916원, 평년의 절반...유통과정 가격짜기 의혹도

지난해 살충제 파동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치솟은 계란값이 올해로 폭락해서 계란 생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

21일 대한양계협회 등에 따르면 15일 기준 계란 가격(30개 기준)은 평균 3916원으로 평년 가격인 6018원과 비교해 거의 반값에 그쳤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봐도 계란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9%나 하락해서 모든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계란 유통과정에서 월 말 정산 방식인 후장기 거래와 가격 깎기(DC)가 30여 년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올해 4월 계란 생산 농가의 수취가격은 개당 65원으로 계란 생산비 112원의 절반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으며, 5월에는 유통업자들이 20원을 낮춰 DC 거래하기로 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더라도 정부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감자, 무 등의 가격이 급등하자 이달

11일 고령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대책을 논의했으나 감자, 무, 애호박, 오이 가격의 동향과 대책만 언급하고 계란은 속 빼졌다.

농가의 자율적인 생산 감축만으로는 평년 수준의 계란 가격 회복이 힘들어 정부가 지난해 국내 계란 공급량 부족 시 물가안정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계란 수입 등의 조치를 했던 것처럼 더 이상의 계란 가격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완영 국회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계란 소비촉진 대책, 농가의 강제적 생산 감축에 따른 예산 지원, 권역별 계란유통센터(GP) 건립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AFA조치·車무역확장법 232조...

정부-업계, 무차별 수입규제 대응 공조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들과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장실시전략실장 주재로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함께 미국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의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여파로 유럽연합(EU)·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수입산 철강 제품을 겨냥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해 조치 수준을 높이는 불리한 기용정보(AFA) 조치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위해 추진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22일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7월 19~20일)에 참석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EU·터키의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서는 해당국 정부 및 업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세종=서병림 기자 sbg1219@

7월부터 고소득 피부양자 84만세대 건보료 인상

다음 달부터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 가입자 등 84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대신 저소득층 589만 가구의 건보료는 약 21%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1단계)이 7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은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가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현재는 연 소득이 1억2000만 원, 재산이 과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앞으로는 연 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5억4000만 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전환 대상은 총 30만 가구로, 소득·재산 초과자 7만 가구는 평균 18만 8000원, 형제·자매 전환자 23만 가구는 평균 2만 9000원의 보험료를 신규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전체로는 39만 가구의 보험료가 약 12%, 월 평균 4만7000원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임대소득, 이자·배당 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2단계 개편까지 완료되면 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가 부과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직장 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임대소득, 이자·배당 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2단계 개편까지 완료되면 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가 부과된다.

檢 ‘수사지휘권’ 폐지 警 ‘수사종결권’ 부여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檢 수사력, 송치사건·공소유지에 집중 대통령 임기 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답회 및 서명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됐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게 했다.

반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더불어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이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견이 표출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은 쉽게 누그러뜨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합의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에 대한 최종 지휘, 책임자가 ‘경무관’이 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보완수사 요구가 불안한 제도로 법적인 규범력이 부족하고 내용·범위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검·경 간 지휘체계의 혼란과 갈등이 상시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이명희 前이사장 영장 또 기각

“구속수사 필요성 없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두 번째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그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봤을 때 구속수사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후 양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되자 풀려났다.

윤한솔 기자 charmy@

이 전 이사장은 첫째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10여 명의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달 11일 이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같은 혐의를 조사한 후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보에 놓였던 이 전 이사장은 다름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을 면한 바 있다.

유령주식 배당 사고 前삼성증권 직원 3명 구속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 발생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아치운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전직 삼성증권 팀장·과장급인 구모 씨, 기모 씨, 최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주인이던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백미선 기자 only@

삼성증권 담당 직원은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을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유령 주식’ 28억 주를 직원들 계좌에 입금했다. 당시 이들을 포함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501만 주(2000억 원 상당)를 팔아치웠다. 또 다른 직원 5명을 주식을 팔기 위해 내렸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13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해당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금융·증권범죄 중점정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대법관 후보 노태약·김선수 씨 등 10명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보자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 회의를 열어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태약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김선수 변호사 등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에는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에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이 포함됐

장효진 기자 js62@

다.

추천위는 현직 법관 33명과 비법관 8명 등 총 41명을 심사해 후보를 압축했다. 통상 추천위의 후보 추천 후 대법원장은 1주일 동안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다. 김영수 대법원장은 10명의 후보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3명을 골라 이달 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제청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26일까지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대법관 후보 명단과 각 후보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한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합 검토를 거쳐 최종 3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장년 “내 일자리는~”



한국무역협회가 증권 인력 취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2018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가 열린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구직자들이 자신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수출기업 24개사를 포함한 총 50개 기업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해외 마케팅, 법안장,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권인력을 채용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日주총 참석, 문제 수습 기회 달라”

항소심 법원에 ‘보석 허가 필요’ 호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 회장은 “해임 안건이 상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데 (주주총회) 현

장에서 직접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회사에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을 수습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해외 출국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 (해명을) 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면서도 “서류로 (입장을) 보낼 수는 있지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의혹을 해소시킬 원하는데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은 증

인도 안중범 전 수석변호사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빈은 해임안을 제출한 뒤 막후에서 일본 주주를 설득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구속으로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주총 참석은 보석의 사유가 아니고, 재계 5위 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아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신분상 잘못을 했으면 더 무겁게 받아들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회장은 12일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신의 이사회 해임안이 상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 여부 결정은 주총 예정일인 이달 29일 이전이 될 전망이다.

윤한솔 기자 charmy@

NH투자증권

NA MUH 모바일증권 나무

오래 기다리셨죠? 주식수수료 평·생·무·료 모바일증권 나무가 돌아왔습니다

대상: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당사 최초 신규 고객
(유관기관 제비용 제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수수료는 0원하게, 서비스는 영원하게!**

지금 모바일 증권 나무와 만나보세요 • 행사 기간 : 2018.03.19 ~ 2018.06.3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의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1249호 (2018-03-15-2019-03-14)

NA MUH
모바일증권 나무

가계부채 증가 부추기는 집단대출... 부동산 침체 맨 대혼란

부동산PF 대출 '양날의 칼'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PF대출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보증부 대출로 연체율도 양호한 편이라 당장은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부동산PF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와 이어지고, 금리인상 기조에서 보험사들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PF 대출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면 언제든 시장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투데이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7개 생명·손해보험사들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2015년 11조3671억 원에서 올 1분기 20조8017억 원으로 약 2년 새 83% 가량 늘었다. 보험사별로 보면 부동산PF

"수익성 높고 리스크 적은 투자 수단"

보증부 대출로 안정성 담보

1분기 연체율도 0.3%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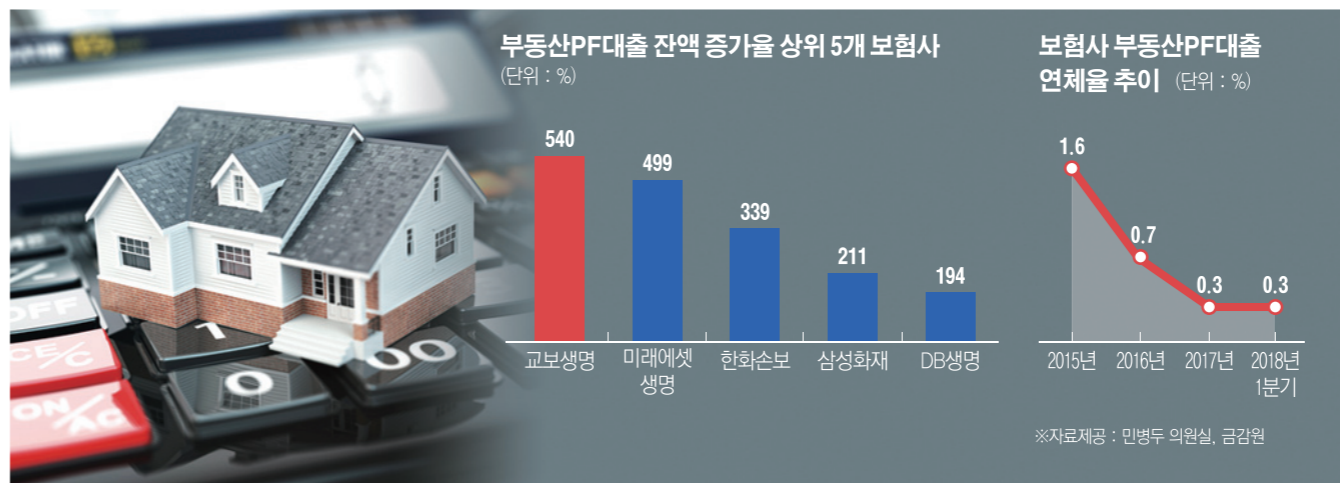
"금리 상승 기조에 건전성 우려"

보험사 가계대출 악화 가능성

DSR 기준 등 관리·감독 강화

대출 잔액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교보생명이다. 2015년 1741억 원에서 올 1분기 1조1149억 원으로 540%가량 증가했다. 그 뒤로 미래에셋생명 499%, 한화손보 339%, 삼성화재 221%, DB생명 194%, 삼성생명 166% 등 순이다.

대출 규모가 감소한 보험사도 7곳 있었다. IBK연금은 2015년 919억 원에서 올 1분기 450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그 뒤로 MG손보 45%, 동양생명 24%, KDB생명 23%, 하나생명 12% 등 순으로 줄어 들었다.

업계와 당국은 부동산 PF 대출이 보증부대출로 이뤄지는 만큼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부동산PF 대출 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다. 민

병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015년 1.6%, 2016년 0.7%, 올 1분기 0.3% 등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험사별로는 MG손보의 연체율이 18.5%로 가장 높았다. KDB생명 4.7%, 한화손보 2.5%, 교보생명 0.4%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은

연체율이 0%대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부동산 PF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편이라 효율적 투자 수단"이라면서 "수익성을 제고하면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순위대출 위주로 투자하고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원리금을 보전하는 안정성 높은 상품

위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보험사들이 저성장·저금리의 장기화 국면에 더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PF 대출을 늘리고 있다"면서 "대부분 보증부 PF대출이라 리스크가 적고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이다"고 말했다.

다만 집단대출이 주로 부동산PF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집단대출은 가계부채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만큼 당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리 상승 기조에서 보험회사 가계대출 규모와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 추후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등에 따라 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정용욱 기자 dragon@

시중銀, 내부통제 인력 태부족... 외국계銀 10% 수준

준법감시조직 비중 0.3~0.6%

우리 93명 최다·기업 42명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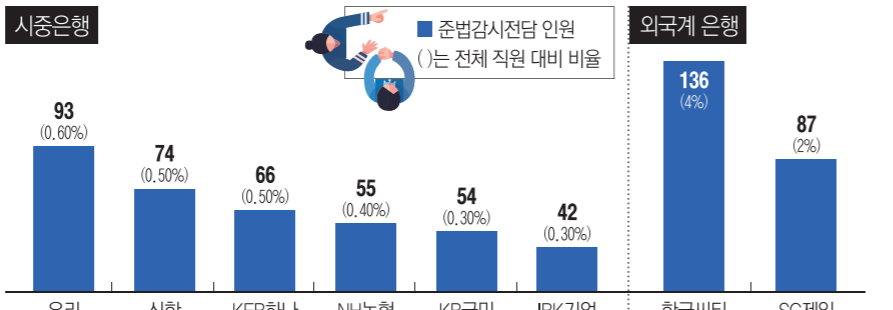
금감원, 9월 중 대책안 마련키로

국내 시중은행의 임직원 직무 수행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조직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10분 1 수준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농협 뉴욕지점 제재 등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기관 '내부통제' 상황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내부통제는 은행 자산과 자원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관리·감독하는 일련의 행위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 준법감시조직 담당 조직은 각각 40~90명 수준이다. 우리은행이 준법감시인 1명을 포함해 전체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74명)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이 42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 밖에 △KEB하나은행(66명) △NH농협은행(55명) △KB국민은행(54명·법무실 제외) 순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내부통제

국내·외국계 은행 준법감시조직 현황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 위반 시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문제가 있을 땐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미리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각 사에 준법감시인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다.

금감원은 2015년 만든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통해 이를 관리한다. 준법감시인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옛 규정을 보면 '해외 선진은행의 경우 평균 은행 전체 인력의 0.6%를 준법감시 조직에 배치 운영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전체 직원 수에서 준법감시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0.3~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원이 가장 많은 우리은행은 전체 직원 1만4094명 가운데 0.6%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전체 직원 1만2508명 가운데 0.3%에 불과하다.

국내 외국계 은행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한국씨티은행은 전체 3356명 가운데 136명이 준법감시 업무를 한다. 전체의 4%다. 기업은행과 10배 이상 차이이다. SC제일은행은 준법감시인 인원이 총 87명으로, 전체 직원 4339명 가운데 2%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인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준법감시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은행마다 준법감시인 업무가 달라 단순비교가 어렵다"면서도 "아직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나마 최근 미국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 규제 칼날을 들이대

자 은행들이 서둘러 관련 인원을 늘렸다. 통상 시중은행은 준법감시인 조직을 자금세탁방지부와 준법감시부로 구성한다. 1100만 달러 과태료 제재를 받은 농협은행은 지난달 자금세탁 조직을 '팀'에서 '센터'로 키우고 인력을 보강했다. 기업은행도 조만간 관련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인원보다 전문성 강화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준법감시조직은 인원보다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스템을 갖추고 컴플라이언스를 할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전날 "금융기관 내부통제는 건전경영과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라며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우리 금융기관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월 중 내부통제 준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준법감시 업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다르다"면서도 "내부통제 문제를 사전에 막는 것은 준법감시인과 경영진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임직원 보수·복리후생비·해외출장 내역... 금감원, 내달부터 경영정보 공개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임직원의 보수와 복리후생비, 해외출장 내역 등을 담은 정보를 공개한다. 금감원은 앞서 채용비리와 주식 차명거래 등 임직원의 각종 비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8월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을 구축, 배일에 싸여있던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외부 감시를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경영정보를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오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보수와 복리후생비, 해외출장 내역을 비롯한 기관 운영정보와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등 경영실적, 경영평가 지적 사항과 이사회 회의록, 내부감사 결과 등이 공시된다.

안철우 기자 acw@

하이투자증권 인수 급물살

▶1면서 계속

김 회장 취임 이후 DGB금융과 현대캐피탈은 3월 만기된 계약일정을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SPA 조건을 7일 수정했다. 인수금액도 4500억 원에서 470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DGB금융은 9월 말까지 당국의 승인과 주총 등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결정하면서 지주사 전환 유예기간인 2년 안인 내년 4월까지 금융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권오갑 부회장이 하이투자증권 매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DGB금융지주의 혁신 노력으로 '빅 딜'을 성사시킬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위해서는 아직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대구은행은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 사건 등 금융 법령 위반 사항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행정조치를 앞두고 있다. 외부 출신 회장이 인적 분할 과정에서 2014년부터 재임한 박인규 전 회장의 공고한 영향력을 밀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ww.douzone.com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일 고객사 주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계, 입력하여 가장 시간이 좋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관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47% / 데이터 유출 방지
- 21% /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북)
-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 13% / IT관리비용 절감

데이터 유출 방지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북)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문의 1688-5000

함께, 행복의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사회의 다양한 바람들이 만나

더 많은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현대차, 폭스바겐그룹 아우디와 '수소차 파트너십' 체결

16년 만의 해외 동맹... '정의선 시대' 본격 신호탄

〈현대자동차 부회장〉

정몽구 회장 '자체기술 보유' 고집
푸조·BMW 파트너십 제안 차단해

경영전략 변화로 경쟁력 시너지 기대
폭스바겐그룹 年 1000만대 車 판매
글로벌 경쟁력·영향력 확대될 것

친환경차 핵심기술 보유 모비스 주도
지배구조 개편 유리한 고지 점할 수도



현대자동차그룹과 세계 1위 자동차업체인 폭스바겐그룹이 20일 수소전기차 기술 개발에서 협업관계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쏠린다. 수소전기차는 현재 친환경차의 주류인 전기차를 대체할 '포스트(post) 전기차' 기술로 주목받는다. 사진은 현대의 수소차 '넥쏘'.

글로벌 주요 국가 및 기업의 친환경차 개발 현황

국가	기업	전기차	수소전기차
한국	현대차	아이오닉	넥쏘
	기아차	쏘울	
일본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EV	클래리티FCEV
유럽	르노-닛산	리프	
	폭스바겐	e-골프	
미국	BMW	i3	
	GM	볼트	
미국	포드	포커스EV	



하게 됐다. 명목상 현대차그룹이 나섰지만 이번 동맹은 그룹 내 친환경차 핵심기술을 보유한 현대모비스가 주도한다. 이 경우 모비스 중심으로 재추진될 지배구조 개편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이번 동맹을 시작으로 아우디폭스바겐그룹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 기업과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 협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대차그룹과 독일 아우디의 수소연료전지차(FCEV-수소전기차) 파트너십은 본격적인 정의선(사진) 부회장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나아가 현대모비스 중심으로 재추진될 '그룹 지배구조 개편' 역시 적지 않은 당위성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이 20일 밝힌 '아우디와 수소전기차 동맹'은 상호 관련기술과 특허를 공유하고 현대차 측이 주요 부품을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장사인데다, 경영전략의 변화와 친환경차 분야의 경쟁



쟁력 강화 등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동맹에서 눈길을 끌었던 점은 16년 만의 동맹이다. 그동안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와 공동개발 및 기술협약을 철저히 배제해 왔다. 2002년 미국 크라이슬러-일본 미쓰비시와 엔진 공동개발을 위해 합작 법인을 설립했던 게 마지막이다. NF쏘나타에 사용된 '세타 엔진'이 이때 등장했다. 16년 만에 이뤄진 협약은 사실상 정

의선 부회장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동안 프랑크푸르트와 독일 BMW에서도 파트너십 제안을 받을 때마다 현대차는 이를 스스로 차단했다. 정몽구 회장의 고집스런 '자체 기술 보유 의지'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었다. 15년 넘게 고집처럼 지켜온 '경영전략'이 수정된 것은 정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그 대상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우디의 브랜드 역사와 가치, 기술개발 능력을 따졌을 때 현대차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다. 아우디가 속한 폭스바겐그룹은 대중차 폭스바겐과 초호화 고급차 벤츠, 슈퍼카 람보르기니 등 10여 개의 브랜드를 쥐고 있다. 연간 1000만 대를 판매하며, 토요타를 앞

서는 글로벌 1위 자동차 기업이다. 아우디는 폭스바겐그룹에서도 친환경차 기술개발을 주도 중이다. 그만큼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기술이 폭스바겐그룹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생산이 확대되면 핵심 부품의 후속 개발은 물론 고가 핵심 부품의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연간 200만 대에 못 미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나 BMW가 아닌 아우디를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다. 규모의 경제를 따졌을 때 폭스바겐그룹에 속한 아우디와 손잡는 것이 향후 시장 지배력 강화에 유리할 수 있다. 아우디 역시 기대감이 크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보다 수소전기차 기술에서 한발 뒤처진 상황에 현대차와의 동맹으로 단박에 최신 기술을 도입

OPEC 입만 바라보는 정유업계

정례회의 하루 앞두고 국제유가 혼조세... 주요 산유국 증산 돌입 전망 유력

5월 말~9월 말 드라이빙 시즌
휘발유 수요로 실적 선방 기대

2016년 이후 감소 정책을 이어오던 석유수출기구(OPEC)가 정례회의를 통해 증산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에 국내 정유업계는 변동하는 유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배럴당 72.65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는 4월에 70달러를 돌파한 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증산 분위기가 확산되자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OPEC 생산자들이 향후 수개월 동안 원유 생산량을 30만에서 60만 배럴로 늘리는 타협안을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증산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이어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OPEC회원국과 비 OPEC 주요 산유국들에 하루 150만 배럴 증산을 제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정례 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거라는 국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 나온다. OPEC과 비 OPEC 산유국은 2016년 12월 하루 18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란의 핵 제재와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으로 예상치보다 더 많은 감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4년간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로 인해 원유 수요가 대체 에너지로 전환된 경향이 있는 사우디가 학습 효과로 증산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사우디 국영기업인 아랍코의 기업공개(IPO)가 무산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우디가 더 유가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또한, 2018년 들어 사우디의 원유 소비량(내수·수출 포함)이

생산량을 넘어서면서 적정 재고 수준 감안 시 증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유가가 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에너지정보청(EIA) 등 주요 기관은 올해 국제유가 전망을 60달러로 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관계자들도 유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2019년까지 연간 160만~170만 배럴까지의 높은 원유 수요가 예측되면서 유가 하락압력을 수요가 받쳐주게 돼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에 영향을 주는 정제마진은 원유 수요보다 제품(휘발유, 등유 등) 수요에 따라 다르다"며 "5월 말부터 9월까지는 미국 드라이빙 시즌으로 전 세계 휘발유 수요가 올라 수출이 전체의 60%인 국내 정유업체 실적이 선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훈 기자 jung216@

"100% 공장 가동해도..." DB하이텍의 행복한 고민

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호조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

DB하이텍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호조에 힘입어 하반기 실적 개선을 이룰 전망이다.

21일 DB하이텍 관계자는 "최근 공장 가동률 100% 가동하고 있는데도 수주받은 칩을 다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주문이 밀리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캐파 증설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인치 시장에 특화된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덕분이다.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하는 반도체 위탁생산은 DB하이텍의 주력사업인데 주로 여러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반도체 양산에 활용된다. 특히 공급 부

족으로 일부 8인치 고가 비메모리 제품의 판가가 오르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중장기 수요가 커지는 점도 긍정적이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8인치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사용하는 위탁생산이 공급 부족의 초입에 들어섰다"며 "위탁생산업체들이 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8인치 위탁생산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며 DB하이텍은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DB하이텍이 올 3분기 매출액 1925억 원, 영업이익 533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6743억

원, 영업이익 1320억 원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상반기까지 이어진 실적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은 0.8%, 영업이익은 7.8%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매출은 7308억 원, 영업이익은 1825억 원으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앞으로 메모리반도체 슈퍼 호황이 끝나면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DB하이텍의 최근 행보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전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혁신성장장을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통해 "향후 공급과잉으로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악화할 것을 대비해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영록 기자 syr@



진화하는 AI비서 'SKT 누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고도화한다.

SK텔레콤은 AI 서비스 처리 속도를 높이는 'AI 가속 솔루션(AIX, AI Inference Accelerator)'을 개발, 자사 AI 서비스 '누구'에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솔루션 적용으로 누구는 중전 대비 서비스 용량이 약 5배 늘어난다. 국내에서 데이터센터 기반 AI 서비스에 해당 솔루션을 상용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AI 플랫폼 누구의 월간 사용자 수는 지난해 8월 11만 명에서 올해 1분기 기준 월 300만 명을 돌파했다. 누구에 내비게이션, 키즈폰, 셋톱박스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서비스 용량이 커졌다.

AI 가속 솔루션을 활용하면 별도 서버 증설 없이 AI 전체 서비스 용량을 중전 대비 약 5배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I 가속기가 활용될 수 있는 AI 분야는 다양하다. 예컨대 AI비서 서비스용 서버에 솔루션을 적용하면 응답 시간이 빨라지며 더 많은 고객들에게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다. CCTV 등 보안 서비스 영역에서도 더 많은 영역을 분석할 수 있어 위험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응 가능하다.

SK텔레콤은 AI 연산 속도 및 전력 효율성을 보다 향상할 수 있는 '차세대 AI 가속 솔루션'도 개발할 예정이다.

박진호 SK텔레콤 ICT기술원장은 "서비스 성능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도 가능한 AI 가속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글로벌 톱 수준의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누구를 시작으로 향후 확장될 다양한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에 솔루션을 적용하여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열전 반도체 탑재 협탁 냉장고 8월 출시"

권일근 LG이노텍 CTO 밝혀
車·선박 등 폐열발전시장 진출



LG이노텍이 올해 연 말부터 친환경 혁신기술인 '열전(Thermoelectric)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나선다.

LG이노텍은 20일 서울 마곡 LG이노텍 R&D 캠퍼스에서 최신 열전 반도체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열전 반도체 테크 포럼'을 개최했다. 권일근(사진) LG이노텍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지난해 외인 냉장고에 이어 올해 8월 LG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협탁 냉장고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정수기에 열전 반도체를 응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영하 50~60도까지 내려가는 가정용 냉동고를 비롯해 폐열발전, 차량과 선박 등으로 차례로 애플리케이션을 늘려 사업을 키워가겠다"고 덧붙였다.

열전 반도체는 전기를 공급해 냉각·가열 기능을 구현하고, 온도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컴프레서 없이 간편하게 냉각·가열이 가능하고, 외부 온도의 변화에도 원하는 온도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폐열(廢熱)을 회수해 전기에너지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권 전무는 "열전 반도체 응용 시장은 냉장고와 같은 가전도 있지만, 3~5년 뒤 폐열발전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선박용 제품의 양산은 2021~2022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라이다(LiDAR)도 보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회사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소재부품 사업은 최소 5년 이상 내다봐야 하는 사업으로, 열전 반도체 역시 5~10년 뒤가 중요하다"며 "5년 뒤에는 매출액 2000억~3000억 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10%대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新주거 트렌드 떠오르는 'MXD'

〈Mixed Use Development, 주거복합단지〉

주상복합 넘어 업무·문화·교육시설도
쇼핑·영화까지 단지 내 윈스톱 라이프
입주 후 매매가 상승률도 높아 인기

부동산 시장에 'MXD' 트렌드가 거세게 불고 있다. 'MXD'란 'Mixed Use Development'의 준말로 '주거복합단지'를 뜻한다. '주거복합단지(MXD)'는 단순히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합쳐진 주상복합의 의미를 넘어 주거와 상업은 물론, 업무, 문화, 교육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 보니 멀리 가지 않고 단지 안에서 윈스톱라이프가 가능하며 주로 초고층, 초대형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랜드마크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선 주거복합단지 타워팰리스, 하이패러 등 인기 끌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복합단지 개발이 늘고 있는 추세다. 수도권에서는 동탄 메타폴리스,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송파파크 하비오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지방에서는 정주의 지웰시티, 부산의 센텀시티 등도 MXD 방식으로 개발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거복합단지(MXD)가 보편화돼 있는 상태다. 일본의 롯폰기힐스를 비롯해 미국의 배터리 파크시티, 파리의 라데팡스, 베를린의 포츠다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주거복합단지는 입주 후 매매가 상승률도 높다. KB부동



서울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주거단지과 업무·상업시설이 연결돼 있고 각종 문화행사도 즐길 수 있다.

산 시세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일대에 들어선 '메타폴리스' 전용면적 109㎡는 최근 2년간(2016년 5월-2018년 5월) 23.53%(5억1000만 원 → 6억3000만 원)의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다. 단지 내 CGV와 홈플러스 등 쇼핑, 문화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매매가 상승률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프리미엄 상승세도 가파르다. 3월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일대에서 분양한 '춘천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면적 99㎡(41층 기준)는 분양가가 4억6880만 원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4월 5억2390만 원에 분양권이 거래돼 단기간에 약 55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주택 분양가에도 불똥 튀나

인건비 상승, 공사비→분양가 파급 불가피
건설산업연구원 "공사비 평균 4.3% 증가" 분석
국토부 "他부처와 협의 보완책 조만간 발표"
규모별 탄력 운영·휴일 셧다운제 등 검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주택 분양가 인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버스 대란' 등 여러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인상이 부작용으로 언급되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제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분양가는 공사비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공사비는 원자재 비용, 인건비 등으로 책정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고자 인력을 증원한다면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결국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인건비가 증가하면) 공사비가 늘어나니깐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특히 아파트 공사비의 경우 마감공사는 사람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 부

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최은정·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증가할 경우 총공사비는 평균 4.3%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최대치는 14.5%로 산출됐다.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늘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이 받는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공사의 경우 계속 적정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증가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민간공사 역시 인건비 증가가 결국 상품을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우려를 인지하고 보완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규모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의 휴일 셧다운(Shut Down)제도를 검토 중이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기술처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52시간제 취지도 맞추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대한 감안해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 역시 감안해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희 기자 jhnsheo@

일반분양 선보이는 지역주택조합 주요 단지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	총가수 (일반분양)	분양시기	시공사
부산 동래구 온천동 183-3	동래 3차 SK VIEW	59-84 28-80(오)	999(126) 444(0)	6월	SK건설
경기 평택시 영신 도시개발사업구역 1블록	힐스테이트 지지역	59-84	1519(235)	7월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0-250	상도역세권 롯데캐슬(가칭)	59-84	885(미정)	하반기	롯데건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0-211	하월곡동 예가(가칭)	45-59	300(90)	하반기	쌍용건설

*위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오)는 오피스텔 *출처: 부동산인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일반분양 2년새 2배

사업 안정성 높아지며 대형사 적극 참여...수요자도 브랜드 아파트 주목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이 늘고 있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안정성이 높아진 데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시공사 선정에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은 총 6508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743가구보다 1765가구 늘어난 물량이고, 2016년 2976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짓는 주택이다. 지난해 6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먼저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내고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하는 등 주택법이 개정됐다. 그동안 문제가 되던 무분별한 조합 추진과 허위, 거짓, 과장 광고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조합 간 잡음이 사라져 오히

려 사업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것은 기본적인 조합원 및 토지를 확보했으며 사업의 안정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아 사업승인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도 시공 참여에 적극적이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렵고, 재건축·재개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수요자들도 안정성, 신뢰도, 시공력 등이 우수한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이 6월 초 대구 수성구에서 1순위 청약 받은 '힐스테이트 범어'는 11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9897명이 몰리며 평균 85.3대 1, 최고 24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권 팀장은 "최근 안정성을 대폭 높여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일반분양을 선보이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늘면서 업계 내 관심이 높은 상태"라며 "성공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꼼꼼히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가사생활' 지원 바라는데... '육아·교육' 제공

뉴스테이, 소비자 선호·실제 서비스 달라...1인 가구 증가 흐름 못 쫓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에서 주로 제공하는 주거서비스가 실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와는 상이하다는 연구 조사가 나왔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서비스와 실제 공급되는 주거서비스 항목 등을 조사한 '민간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2015-2017년 19개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입주예정자 혹은 기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수요자들은 '가사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8.5%로 '육아지원·교육서비스'에 대한 선호(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주거서비스 계획은 '육아지원·교육 서비스'의 공급이 82.5%의 단지에서 계획돼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사생활서비스' 제공이 계획된 단지 비율은 63.1%로 수요

자 선호에 비해 크게 저조했다.

세부항목별로는 특히 '세탁 서비스', '식사 제공 서비스', '텃밭 조성' 등의 주거서비스가 높은 수요자 선호도에 비교한 상대적인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 비율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요자의 생활지원 서비스 선호현상은 고령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의 경우 보다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월평균 11만4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수요자는 이용료 지불 의사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 주거서비스가 무상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해 관리비와 임대료에 추가 부과하지 않는 상황이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www.vitamin-house.com / 1588-8529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U, 22일부터 대미 보복관세...독일 후업계 '무관세' 화해 제안

앞당겨진 무역전쟁

철강·오토바이 등 3.6조원 규모 부과
라카르드 IMF 총재 "양측 모두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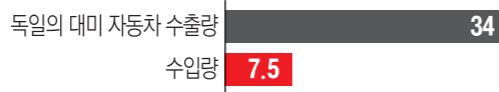
美 12만명 고용한 독일車 독자 행보
메르켈 정부 "EU와 발맞춰야" 신중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예상보다 앞당겨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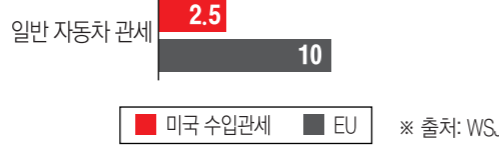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EU는 이날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에 매긴 관세에 대한 보복관세를 2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EU 28개국은 다음 달 보복관세를 발동하려 했으나 그 시기를 이번 주로 당겼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초 국가 안보를 내세워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가 미국에

2017년 미국-독일 자동차 무역량
(단위: 10억 달러)



2017년 EU-미국 자동차 수입 관세
(단위: %)



※ 출처: WSJ

부과하는 보복관세는 28억 유로(약 3조6000억 원) 상당으로 미국이 적용한 관세에 상응하는 규모다.

EU의 보복관세 대상은 미국산 철강을 포함해 청바지,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오펜지수스, 사탕수수, 땅콩버터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미국 정치권이

예민하게 반응할 만한 품목들이다. 각 지역 특산품이라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현지 주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EU의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결정은 우리에게 별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면 우리도 보복을 거둬들이 것"이라고 합의의 여지를 뒀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입고 세계 무역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무역 전쟁은 양측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면서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공화당 패트

투미 상원 의원은 "철강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보를 들먹이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측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독일 자동차 업계는 강력한 EU와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업계는 미국과 EU의 화해를 추진하며 양측 간 자동차 '완전 무관세'를 제안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리처드 그레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독일 자동차 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제안은 EU와 미국이 각각 수입 자동차에 매기던 10%, 2.5%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제안의 전제조건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입 자동차 25% 관세 계획 백지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업계는 자신들이 미국에 약 11만6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레넬 대사는 WSJ에 "독일 자동차 산업을 망치

는 것은 미국에도 좋지 않다"며 독일 자동차 산업이 수만 명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보도와 관련해 로스 장관은 "독일이 무역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르게 접근하고 있다"며 "EU가 미국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10% 관세를 낮춘다면,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독일 정부 측은 자동차 업계의 이런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U와 공동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WSJ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이미 비슷한 제안을 했으나 큰 반향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EC)는 독일 자동차 업계의 제안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대미 관세 보복에 대한 유럽 내 단합을 강조했다. 일례로 프랑스의 르노와 푸조시트로엥 같은 자동차 회사는 미국에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 업계가 제안한 자유무역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결정적으로 무역 관련 협상 권한은 EC에 있다. 임소연 기자 ronsoyeon@

트럼프, 비난 여론에 '불법 입국자 자녀 격리수용'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불법 입국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나서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불법 입국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와 떨어뜨려 비인도적이라는 거센 비난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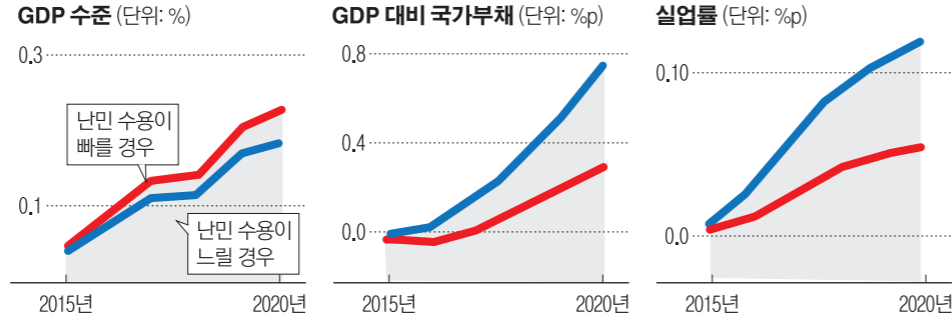
키워드로 보는 이슈

반난민 정책의 역설

미국·유럽도 꺼리는 난민 수용, 경제성장률엔 보약

美 난민 소득, 외국계 국민보다 커
노동참여율·취업률도 평균 이상
유럽도 노령화의 대안으로 가능

난민 유입이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출처: 경제정책연구소(CEPR)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수는 2540만 명에 달했다. 이들이 세계 각국에 망명 신청을 하며 국가마다 난민 수용 문제에 갈등을 겪고 있다. 하지만 반난민 정책이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

최근 난민 수용 논란에 불을 지핀 건 미국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반난민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아이를 동반한 불법 이민자를 무관용 기소처리하겠다고 발표해 수천 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게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20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와 미성년 자녀 격리 수용을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난민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과 달리, 연구 결과는 난민이 적용하면 국가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뉴

욕이주연구센터(CMSNY)는 1987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 정착한 110만 명의 난민과 합법 이민자, 그리고 외국계 미국인을 조사해 경제적 적응 능력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난민들의 노동 참여율은 68%에 달했고, 취업률은 64%를 기록해 전체 미국 인구의 취업률보다 1~4%포인트 높았다. 난민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만 달러(약 2210만 원)로, 외국계 미국인의 평균소득 1만 8700달러보다 많았다. 노동 숙련도도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높았다.

유럽도 난민 수용을 두고 몇 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 반발도 심해 유럽 곳곳에서는 반난민 정책을 표방한 극우 정당이 힘을 얻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연립정권을 수립한 오성운동과 극우성향 동맹이 반난민 정책을 펴고 있고, 오스

트리아에서도 반난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 자유당이 연정을 구성해 주류 정치권에 편입했다. EU의 난민 수용 정책을 비판해왔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4월 3일연에 성공했으며 덴마크는 이미 우파 덴마크 민중당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그동안 난민 유입이 유럽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난민들이 유럽의 노령화에 대비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반난민 정책이 난민들의 통합을 막을수록 실업률도 높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IMF는 난민 수용 여부보다 고용 정책의 유연성 정도가 경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최혜림 기자 abc1994@

디즈니, 폭스 인수에 713억 달러 베팅

컴캐스트보다 높은 가격 제시

월트디즈니가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21세기 폭스 주요 자산 인수를 놓고 컴캐스트와의 전쟁에서 다시 유리한 국면에 올랐다. 20일(현지시간) 디즈니가 컴캐스트의 인수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인수 전쟁이 확대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디즈니는 이날 현금과 주식을 합쳐 713억 달러(약 78조8934억 원)에 폭스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컴캐스트가 제시한 현금 650억 달러를 웃도는 것이며 디즈니의 앞선 제안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디즈니는 폭스에 넷플릭스와 같은 뉴미디어 경쟁자와 싸우는 데 있어서 컴캐스트보다 자사가 규제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스는 이날 디즈니의 새 인수안이 컴캐스트의 제안보다 "우월하다"고 밝혔다.

앞서 디즈니는 폭스를 52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컴캐스트가 뛰어들면서 인수전이 벌어졌다. 디즈니와 컴캐스트는 폭스의 영화와 TV 스튜디오, FX와 지역 스포츠채널을 포함한 미국 케이블TV네트워크,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 지분 3분의 1, 스카이프와 스타인디아를 비롯한 미디어 자산을 놓고 겨루고 있다. 폭스뉴스와 폭

스스포츠1 등 폭스방송 네트워크는 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폭스는 디즈니의 새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날 디즈니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폭스 이사회를 앞두고 새로운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 주말 디즈니와 폭스는 인수에 대해 논의했으며 머독 회장과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디즈니는 폭스 주주들에게 현금 50%, 주식 50%를 지급하는 데 동의했다.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면 폭스 주주는 합병 기업의 19%를 소유하게 된다.

일부 관측통들은 디즈니와 컴캐스트가 폭스 자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으나 아이거 CEO는 이를 부정했다. 그는 이날 "우리는 폭스 인수에 관해 수개월의 규제 검토를 거쳤으며" "우리는 컴캐스트보다 인수 승인에 걸리는 시간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안으로 폭스 인수전에서 디즈니가 우위를 점했으나 컴캐스트가 입찰가를 다시 높여 제안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투니 아모비 CFRA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컴캐스트가 새로운 대응안을 내놓는다면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수 경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유니클로 회장 "손정의 하는 일 보면 조마조마"

소프트뱅크 사외이사로 주총서 광폭 투자에 일침

일본 국민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이 천문학적 자금을 미래 사업에 쏟아 붓고 있는 소프트뱅크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에게 따끔한 일침을 냈다.

20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시내에서 소프트뱅크의 주주총회가 열렸다. 손 회장은 2000명 이상의 주주들 앞에서 앞으로 소프트뱅크가 통신에서 투자로 사업의 중심을 전환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10조 엔(약 100조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통해 전 세계의 유망한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최고로만 구성된 그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유니콘 사냥꾼"이라며 1년간 30건의 투자 실적을 자랑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주주들은 손 회장의 비전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소프트뱅크의 사외이사인 야나이 회장이 입을 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야나이 회장은 "나는 항상 손 회장이 하는 일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은 자신감이 넘치지만 진짜 관점은 것인지가 나는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중에게도 "오늘 실명을 들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나이 회장의 발언은 손 회장의 거침없는 투자 행보에 경고를 날린 것이나 다름없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참여로 작년에 출범한 920억 달러 규

모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그 동안 배차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테크놀로지 비롯해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손 회장은 야나이 회장의 조언에도 아랑곳없이 "이중 간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최고로만 구성된 기업 그룹을 만들고 싶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이고, 성공하는 방식"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아울러 그는 "자사의 주가가 알리바바그룹 등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저평가되고 있다"며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매수하라"고 주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손 회장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소프트뱅크 이사인 알리바바그룹의 마윈 회장이 나서서 그를 두둔했다. 마 회장은 "나는 손 회장의 용기와 비전을 존중한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래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소프트뱅크의 주가는 2000년 닷컴 버블 때 2만 2000엔으로 사상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8000엔대에 머물며 전성기의 반토막도 안 된다. 이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에 손 회장은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과 부채를 고려하면 주당 1만4199엔의 가치가 있다"며 "상장 예정인 통신 자회사 분이 추가될 것이어서 앞으로는 주가를 격정할 필요가 없다"고 달래기도 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당신의 **봄**



대한민국 당뇨인의 천만다행을 위해

천만 다행

혼자하면 힘들고 어려운 당뇨관리
내 손안의 든든한 당뇨 주치의
마이헬스노트가 있으니, 천만다행!



당뇨병 고객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마이헬스노트 앱



안드로이드폰
에서 앱 설치



아이폰
에서 앱 설치

- ♥ **자가관리 서비스** 혈당기록, 자동 칼로리 계산, 걸음 수 측정이 편리
- 📖 **건강 정보 서비스** 영양, 수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의 건강정보 제공

- 🏥 **전문가 코칭 서비스** 강북삼성병원 당뇨전문센터 자문을 통한 맞춤상담
- ♥ **무료 이용 서비스** 삼성화재 실손보험 가입자 중 30대 이상 당뇨병 보유 고객이라면 무료 이용 가능

*마이헬스노트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마이헬스노트' 앱을 검색 하면 바로 설치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를 참고해 주세요.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메신저 감성 고대하며...



모스크바에서 한 아르헨티나 축구팬이 리오넬 메시를 가톨릭 성인처럼 묘사한 '축구 성화'를 보여주 고 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아이슬란드에 1대 1로 비긴 아르헨티나는 한국시간으로 22일 오전 3시 크로아티아와 2차전을 치른다. 모스크바EPA/연합뉴스

호날두, 대회 4골로 득점 단독 선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0일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B조 2차전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전반 4분 만에 헤딩 선취골을 터트린 후 환호하고 있다. 호날두는 이날 대회 4골을 기록하며 러시아 월드컵 득점 단독 선두에 올랐다. 또한 A매치 통산 85골로 62년 만에 유럽 선수 A매치 역대 최다 골 기록을 갈아치웠다. 모스크바/로이터연합뉴스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조별리그 첫 경기인 18일 서울 잠실구 서 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태극전사의 선전을 지원하며 열띤 거리 응원을 펼치고 있다. 경기는 대한민국이 0대0 무승부였다. 오승현 기자 story@

러 방문 文 대통령, 멕시코전 현장 관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밤 12시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에 '출격'한다. 21일부터 2박 3일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의 조별리그 2차전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응원할 계획이다. 우리 대통령이 월드컵 대표팀 경기를 관람하는 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신태용 감독은 20일 애시 손흥민(토트넘)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훈련을 실시했다. 대표팀은 18일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페널티 킥을 내줘 0-1로 졌다. 스웨덴이 15개 슈팅을 기록하는 동안 한국은 슈팅을 5 개밖에 못 했다. 유호 슈팅은 하나도 없었다. 손흥민은 스웨덴전에서 수비 부담이 가중되는 바람에 황백에 가까운 움직임 보였다. 멕시코전에서는 손흥민과 황희찬(울즈부르크)의 무릎 기용이 점쳐진다. 2차전 패배는 조기 탈락 확정을 의미한다. 3차전 상대가 세계 랭킹 1위 독일 인 만큼 자칫 3연패 탈락은 물론 '무득점 탈락'의 불명예까지 뒤집어줄 수 있 다. 신 감독은 멕시코가 1차전 독일전에서 1대 0 승리를 거둔 만큼 2차전은 공 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수비 전술을 가다듬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 멕시코는 공격의 선봉인 하비에르 에르난데스(레알 마드리드)와 독일전 결승골 을 기록한 이르빙 로사노(에인트호번) 등 날카로운 장로 무장해, 이들 공격 수의 예봉을 꺾는 게 우리 수비의 과제다.

승리의 환호, 패배의 키스



러시아가 조별리그 2승을 거둬며 A조 선두로 나섰다. 러시아는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5대 0으로 꺾은 데 이어 2차전 이집트전에서도 3대 1 승리를 거뒀다. 아르헨티나(왼쪽) 폴란드가 날은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수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가 19일 세네갈전에서 1대 2로 패배한 후 아내에게 위로받고 있다. 분데스리가 2017-18시즌 득점왕 이르세날 플리기어 19일(현지시간) 이집트전 후반 17분, 러시아의 세 번째 골을 넣고 조별리그 2연승을 거둬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폴란드 안으로 향한 유호 슈팅은 한 개뿐이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TASS/연합뉴스 레반도프스키는 이날 경기에서 단 두 개의 슈팅에 그쳤다. 골문 안으로 향한 유호 슈팅은 한 개뿐이었다. 모스크바EPA/연합뉴스

뜨거운 응원전



관중실에서 벌어지는 각양각색의 응원전이 그라운드 못지않게 뜨겁다. 폴란드 팬은 마리에 화관을 쓰고 손카스를 날리는가 하면, 상대팀인 세네갈 팬은 웃통 맨살을 하얗게 칠해 위안감을 표시했다. 소품을 활용한 분장도 눈길을 끌었다. 콜롬비아 팬은 후안인 마리를 마리에 쓰고 이 수로 변신했다. 이집트 'P' 피켓을 든 팬은 파라오 코스프레를 했다. 일본 팬은 이미에 '必勝(필승)'이라고 쓰인 블라인드 모양의 응원복을 입고 익살스러운 포즈를 취했다. 로이터/AP/AFP/EPA연합뉴스

날씨·종교·입맛까지 파악... 가구공룡 이케아 '인도 상륙작전'

연중 기획 '마지막 슈퍼파워' 인도로 가는 길 ⑫

내달 하이데라바드서 첫 매장... "2025년까지 25곳 오픈"
인 가구시장, 글로벌 14위... 年 성장률 13% '블루오션'
가격·소재 등 소비자 기호조사에 4년 투자 '민반의 준비'

세계 최대 가구소매업체인 스웨덴 이케아가 속원 사업인 인도 시장 진출 초입기에 들어갔다. 다음 달부터 인도 중남부의 하이데라바드에서 이케아의 첫 인도 매장이 영업을 시작한다. 최근 CNN머니와 퀴즈 등 외신은 '가구공룡' 이케아의 인도 진출 전략과 전망을 분석하면서 인도 가구 시장이 대변혁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케아는 2019년 봄바이에 이어 델리와 벵갈루루에도 매장을 낼 예정이며, 2025년까지 인도 전역에 25곳의 매장을 연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패트릭 안토니 이케아 인도지사 부사장은 "우리는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다채널 접근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9년부터 전자상거래 서비스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의 가정용 가구 시장은 현재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시장이다. 홍콩무역발전국(HKTD)은 2022년까지 인도의 가구 시장이 270억 달러(약 29조 94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컨설팅 기업인 와지르어드바이스에 따르면 2016-2021년 사이 인도 가구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13%에 달할 전망이다. 안토니 부사장은 "인도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새 주택이 늘고 있다"며



주벤시오 멧추 이케아 인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해 12월 21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이케아의 인도 진출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뉴델리/EPA연합뉴스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친구, 가족과 함께 나누는 문화는 인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 철저한 준비를 갖춘 이케아가 선진 서비스를 선보이며 가구 업계의 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다.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이케아는 무려 6년간 인도 정부의 승인을 받으며 노력했다. 2013년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뒤에는 인도 소비자들의 기호를 조사하는 데 4년을 투자했다. 이케아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식량 메뉴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지역 특성을 적용하는 전략을 세웠다. 단단한 매트리스를 선호하는 인도인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준비하는가 하면, 매트리스 사이에 코코넛 층을 더해 무더운 인도의 여름에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주벤시오 멧추 이케아 인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지 고객의 생활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800가구가 넘는 집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케아 내부에는 1000석 규모의 레스토랑도 입점한다. 인도 정부와 레스토랑 입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를 한 끝에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레스토랑에도 이케아의 현지화 전략이 숨어 있다. 이케아 레스토랑의 대표 음식은 미트볼이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인도에서는 채소와 닭고기를 이용한 음식을 내놓는다. 인도식 튀김 만두인 사모사도 메뉴에 포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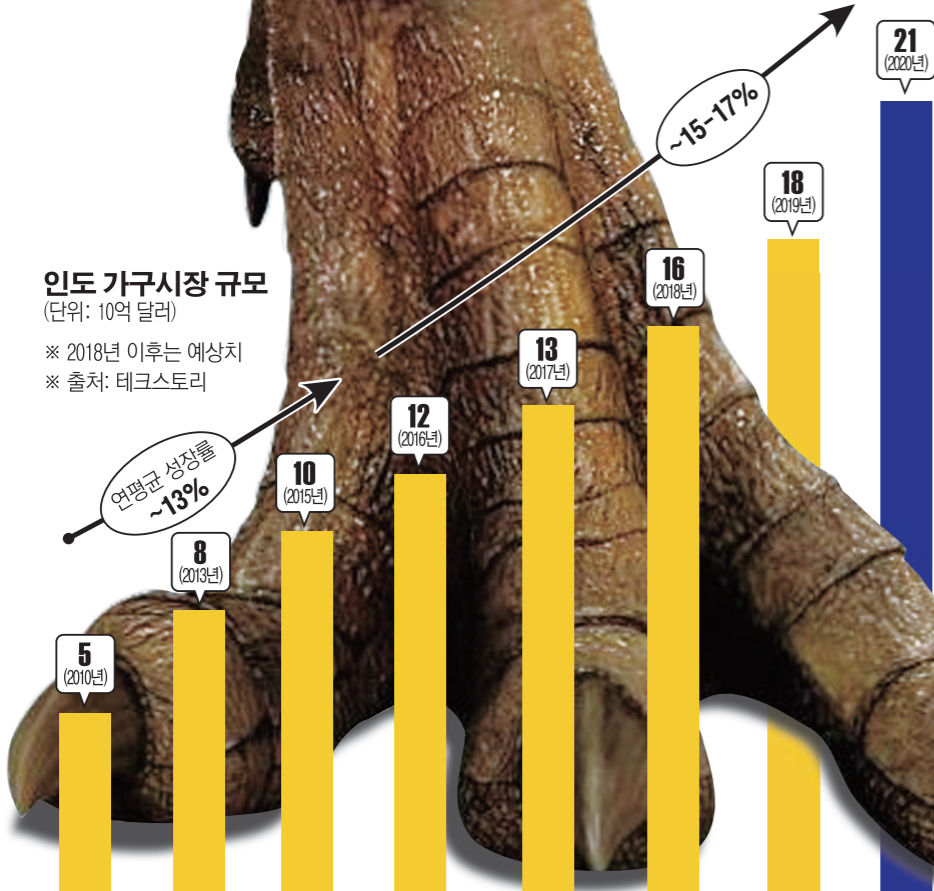
이케아가 인도 진출에서 내세운 건 단연 저렴한 가격이다. 하이데라바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15%는 우리나라 돈으로 32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평균 연봉이 2000달러인 인도의 고객들을 겨냥해 1달러 미만의 제품도 판매한다.

존 아킬리아 이케아 인도 판매부장은 "가격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인도는 가장 어려운 시장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아킬리아 판매부장은 "인도 중산층에게 이미 이케아는 잘 알려진 브랜드"라며 "하이데라바드에 설치한 체험 공간에 벌써 수천 명이 다녀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이데라바드 매장에 매년 700만 명의 고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의 소미야 아디타유 에널리스트는 "DIY (Do It Yourself·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물건) 문화는 인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 유치에 위해서는 배송과 조립 서비스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케아도 인도 소비자의 이 같은 성향을 반영해 가정용 심부름 앱인 어반클랩과 손잡고 조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반클랩은 육식 청소와 화장, 기계 수리 등 다양한 고객의 심부름을 대신 수행해 주는 앱이다. 어반클랩 담당자는 "이케아 가구를 산 고객이 어반클랩에서 가구 조립을 신청하면 이케아에서 조립 교육을 받은 직원이 파견돼 설치를 도와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안토니 부사장은 "매장 하나를 여는 것이지만, 이는 인도 시장 전체에 진입하는 매우 새로운 일"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최혜림 기자 abc1994@

인도 가구시장 규모
(단위: 10억 달러)
※ 2018년 이후는 예상치
※ 출처: 테크스토리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플립카트' 꺾친 월마트 "이케아, 비켜!"

세계 최대 오프라인 소매업체 월마트가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플립카트를 통해 현지 가구 시장 장악을 위한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월마트는 경쟁사 아마존과 플립카트를 놓고 인수 경쟁을 벌인 끝에 지난달 초 플립카트 지분 77%를 160억 달러(약 17조2656억 원)에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월마트는 이번 인수를 통해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은 물론 빠르게 성장하는 가구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됐다.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 타임스(ET)에 따르면 인도의 가구와 인테리어 부문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36% 급증해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향후 5년간 비슷한 성

장세가 예상된다.

플립카트는 이에 가구 부문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잡고 있다. 플립카트는 지난해 9월 자체 브랜드 '퍼펙트홈'을 론칭하면서 인도 가구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무섭게 성장하면서 경쟁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퍼펙트홈은 인도 온라인 가구 시장에서 1년도 안 돼 점유율 30%를 돌파했다. 플립카트는 올해 가구 부문 매출이 전년보다 4-5배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마트도 플립카트를 통해 인도 가구시장에서 자리 잡게 되는 셈이다.

플립카트 가구 부문 대표인 난디타 신하는 "우리는 공급망을 개선하고 물류센터를 고객과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 신속한 납품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립카트는 내구성 등 품질에 초점을 더욱 맞춘 새 온라인 가구매장 '퍼니슈어(FurniSure)'도 지난달 열었다. 이 매장은 각종 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내구성이 튼튼한 가구만을 판매한다.

플립카트는 1단계에서 250곳 이상의 공급업체들이 품질 인증을 받은 가구를 제공할 것이



인도 벵갈루루에 있는 플립카트 본사. 벵갈루루/로이터연합뉴스

며, 이들 제품은 10년 동안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난디타 신하 대표는 "인도에서 가구 쇼핑은 온 가족이 참여하는 활동이다. 가구는 그만큼 현지 소매시장과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객 중 3분의 1은 구입한 가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플랫폼에서 고객들이 품질 불만을 느끼지 않고 가구를 구입하도록 퍼니슈어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퍼펙트홈 제품도 내구성 인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플립카트는 표시된 사양과 실제 가구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고 고객이 불만을 느끼면 바로 반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질 보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구 시장에서 '유티체널' 전략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유티체널이란 온·오프라인·모바일을 넘나들며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시장 강자인 플립카트가 오프라인 유통 공룡 월마트와 손잡으면서 시너지를 내느냐가 인도 가구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임소연 기자 ronsoyeon@



Good Water Project in School

굿네이버스

학교 안의 깨끗한 물, 아이들을 꿈꾸게 하는 물

굿네이버스는 깨끗한 물 지원을 통해 지구촌 아이들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학교 중 식수가 없는 학교, 49%
-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걷는 거리, 6km

굿워터프로젝트

검색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Young(리)한 Youth를 응원합니다



팬들에게는 든든한 힘을,
KB고객에게는 성공에 대한 믿음을!

KB X BTS

KB국민 BTS 체크카드



KB X BTS 적금

가입방법 :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혹은 홈페이지 및 스타뱅킹 어플,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어플로 신청가능

[KB X BTS 적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KB국민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 및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0362호(2018.06.15기준) ※광고물 유효기간 2018.12.31까지
[KB국민 BTS 체크카드] ※KB국민 BTS 체크카드 서비스는 이용실적 조건 및 개별 서비스 제공한도가 존재하며,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관련 세부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시:거래발생 시점의 최소 기간(2개월) 유이자할부 수수료율/무이자할부 거래 연체시: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할부 수수료율, 그 외의 경우 정상 이자율은 상법상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 *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기준),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80619-01896-ADP(2018.06.19 기준))

* 연체이자율:회원별,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연체 가산이자율 3%(p), 법정최고금리(24%이내)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KB 국민은행

KB 국민카드



이기호의 '사에라'

당신의 월드컵

오지 말았어야 했다? 괜한 짓을 한 것일까?
우근씨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옆에 앉은 아들은 손에 권 막대 풍선만 열심히 두들겨대고 있었다. 젊은 남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우근씨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불편하기만 했다.

아들과 함께 종합운동장으로 가기로 마음먹은 것은 다분히 즉흥적인 결정이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본 지역 방송 뉴스 때문이었다. 잠시 후 밤 9시부터 한국과 스웨덴의 월드컵 조별 경기가 열리는데, 우리 지역에선 종합운동장 대형 스크린을 보며 함께 응원전을 한다는 것이었다.

"저기가 가 볼까?"
우근씨가 말을 꺼내자 아들의 시선이 그제야 TV로 향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열두 살이 된 아들이다. 우근씨가 마흔두 살이 되던 해 태어난 아들, 하나뿐인 아들.

우근씨는 결혼이 늦었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고 보니 어느새 마흔이 다 되어 있었다. 7년을 만난 애인과의 결혼을 한 것은 우근씨 나이 마흔 한 살의 일.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지방 국립대에서 받은 학위였지만, 자신은 무난히 대학에 자리를 잡을 줄 알았다. 우근씨의 전공은 영국사(史)였다. 근대 영국의 노동 계급 연구가 그의 주 전공이었다. 영문과는 많으니까, 선배들도 어렵지 않게 대학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자신의 주 전공은 특수한 것이니까, 그 역시 같은 코스를 걸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세상은 곧 변했다. 아무도 그가 연구한 1890년대 영국 면 공장의 노동 형태와 노동법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 대학의 어떤 계열 학과들은 줄줄이 통폐합되었고, 그는 몇몇 대학의 영어회화 시간강사 신분으로 십 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의 아내는 현재 대형마트의 계산원으로 밤 열한 시까지 일한다.

그는 아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종합운동장으로 갔다. 일주일 에 겨우 하루만 시간강사로 출근했지만, 그는 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다. 대개의 경우 그는 거실에서, 아들은 자기 방에서 각자 책을 보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 앞 공터에서 자전거를 끌어주면서 놀아주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는 이제 쉰네 살이.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오르는데, 다른 아빠들처럼 아이와 함께 볼을 차거나 배드민턴을 하기엔 무리가 따랐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환갑이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면 그는 더 우울해졌다. 아무래도 그 우울한 마음이 생각지도 않은 밤 외출을 하게 만든 것이라. 월드컵 응원이라니, 그는 젊은 시절에도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었다.

경기 시작 한 시간 전이었지만, 종합운동장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가족 단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고, 죄다 대학생이나 삼십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뿐이었다. 하긴 경기가 밤 아홉 시에 시작해서 밤 열한 시나 되어야 끝나니,

다음 날 학교에 가려면... 우근씨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라도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근씨 옆에 자리를 잡은 젊은 남자들은 앉자마자 맥주와 치킨을 먹기 시작했다. 종합운동장 대형 스크린 아래에선 치어 리더들의 요란한 응원이 시작되었다.

"이 병신새끼야! 그걸 패스라고 해! 눈깔이 빼었어!"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우근씨 옆자리에 앉은 남자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의 욕설이 들려올 때마다 우근씨의 아들은 깜짝깜짝 놀란 얼굴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남자들의 욕설은 이내 더 많은 사람의 함성에 묻혀버리곤 했다. 우근씨는 기본이 상했지만, 막대 풍선을 두들기며 스크린에 열중해 있는 아들의 옆모습을 보면서 참았다.

하지만, 남자들의 욕설은 갈수록 더 심해졌다. 한국 수비수가 PK를 내주었을 때 절정을 맞았다.

"저 새끼 누구야! 저 등신 새끼가 진짜!"
"감독 새끼가 문제라구! 어디서 저런 걸 수비수로 기용하고!"
우근씨가 참지 못하고 한 소리 했다.
"거 좀 조용히 봅시다."
하지만 남자들은 우근씨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용히 보려면 집에서 보지, 왜 여기서 봐."
"축구 씨발 욕하려고 보는 거지, 감상하려고 보나?"
남자들은 맥주 캔을 부딪치며 서로 킥질거렸다.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보자보자하니까..."
우근씨는 남자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면서 일어섰지만... 그러나 다시 제자리에 조용히 앉고 말았다. 맥주 캔을 들고 있는 남자들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는 우근씨가 강의를 나가 는 대학의 학생이었다. 그의 제자였다...

그는 경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아들과 함께 종합경기장 밖으로 빠져나왔다. 아이는 아빠한테 왜 일찍 가는지 묻지 않았다. 아빠의 얼굴이 지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아이가 물었다.
"아빠, 왜 월드컵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우근씨는 멀거니 창밖을 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너무 자주 열리면 재미없잖나? 시끄럽기만 하고..."
우근씨의 말에 아들은 혼자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곤 말했다.
"그럼 이제 아빠랑 나는 다섯 번밖에 월드컵을 같이 못 보겠네요?"
이번엔 우근씨가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다섯 번의 월드컵, 이십 년의 시간, 칠십이 넘는 자신의 모습... 아들이 말했다.
"저는요, 시끄러워도 좋으니까 월드컵이 자주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근씨는 계속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소설가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 월 1회 연재



블록체인 활용 지재권 거래소 만들자

자본시장 속으로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몇 년 전 일이다. 모 중소기업의 대표가 찾아와 중국 상장기업의 특허침해건에 대해 물었다. 중국 여행 중에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현지 상장사의 상품에 자기 회사 특허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다. 회사 측에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은 해당했다. 해당 특허는 자신들이 갖고 있으니 소송할 테면 하라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중국에서 특허를 내지 않아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의 일이 떠오른 것은 최근 블록체인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만약 한-중 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거래소를 만들면 이런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이렇게 되면 한-중 양국 중소기업들이 보유 중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 가치도 공인된 거래소를 통한 국제 거래로 한층 높일 수 있다.

또 모든 지재권 상품은 블록체인에서 상품화·자산화돼 등록·거래될 것이며, 창조자가 등록하는 순간 권리 설정은 물론 담보·보호가 이뤄지도록 권리증서가 발급된다. 특히바로 상품과 자산이 즉시

발행되고 거래되며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래를 통해 가치가 올라가고 필요한 지식 자산을 쉽게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기술은 중국 내에서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일례로 중국 인터넷 기업 '바이두'는 최근 이미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톡포토 플랫폼'을 출시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들을 추적해 저장된 저작물과 비교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 의혹을 입증하는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을 사용해 영구적인 저작권 인증서를 발급하는 블록카이(Blockkai)도 한 예다. 사용자의 인증서가 일단 업로드되면 라이언트 작업의 온라인 사용을 추적하고 허가되지 않은 사용이 있으면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지재권 거래소가 실현된다면, 특히 한국 기업에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본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제품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려면 현지에서 상표권, 특허,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을 미리 등록하거나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절차나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지재권을 등록하고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자기 제품이 이미 불법 복제됐거나 특허가 침해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플랫폼 구축에 나서야 하는 이유

다. 특히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주효한 용도가 자체 자본 기능이 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동시에 주된 교역국인 만큼 지재권 보호가 절실하다. 문화산업의 경우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반면 중국은 2.43%에 불과하다. 중국은 책 1권을 수출하고 10권을 수입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저작권 분쟁 사례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터넷만 봐도 알 수 있다. 인터넷 생태계에서 저작물의 복제와 보급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 빈번한 분쟁, 관리상 취약한 보호, 증거 제공의 어려움, 높은 수준의 권리 보호 비용 등이 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지재권 분야에 도입한다면 여러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본다. 현재 중국의 저작권 응용 프로그램 누적 건수는 800만 건을 돌파해 연평균 18.7%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저작권 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콘텐츠 제작자가 여전히 많다.

이런 현상은 콘텐츠 창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지식재산권 거래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알쏭달쏭

모(苜)내기

낮엔 한여름인 것 같으면서도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보리가 익어가는 음력 4월을 '맥추(麥秋 麥bori 맥, 秋 가을을 추)'라고 한다. '보리가 가을'이라는 뜻이다. 곡식이 익기 위해서 보리가 익는 음력 4월, 여름이지만 일시적으로 쌀쌀한 며칠을 두고 맥추라고 하는 것이다.

보리가 익으면 밭에서는 보리타작을 하고, 무논에서는 벼농사 모내기를 시작한다. 농촌이 가장 바쁠 때이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농번기 방학이라는 게 있어서 학생들도 학업을 잠시 멈추고 농사일을 도왔다. 전 학생이 모내기에 참가하여 들녁을 짝 채운

채 종일 모내기를 돕는 경우도 있었다. 고달프기도 했지만 참 소박한 시절이었다.

오늘날, 농사일이 바쁘다고 해서 만약 전 학생을 농사일에 동원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칠 테고 '강제노동 운운'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 TV를 통해 마늘과 양파를 수확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농민들을 봤다. 일꾼을 사려고 해도 다들 땀별 아래 일하기를 꺼려 일꾼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한다. 이럴때, 하루쯤 학교의 전 학생이 봉사활동을 나가 하루만 농사일을 도우면 안 될까? 참으로 좋은 체험학습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일러 '강제노동 운운'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누구

도 나서서 그런 제안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다행히 상차 모내기 체험 행사'를 했다고 한다. 그도 좋은 일이지만 고등학생 정도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루쯤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보리 수확은 끝났지만 모내기로 인해 농촌은 아직도 바쁘다. 모내기는 원래 '모(苜)내기'였다고 한다. 苜는 '작 모'라고 훈독한다. '새싹' 학생들에게 새싹을 내는 '모내기'를 통해 노작(勞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교육이 될 수 있을 텐데... 시절이 하 수상하니!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아이타올(주)

Made in Korea

www.itowelmall.co.kr

대표번호 02) 755-1091

5G 경매, '승자의 저주'는 없었다는데...

뉴스더읽기 이동통신 사업자와 주파수

5G 주파수 3.5GHz 대역 경매 결과

	3.42	3.50	280MHz 폭	3.60	3.70GHz
	LG U+		kt	SK telecom	
대역(위차)	3.42~3.5GHz		3.5~3.6GHz	3.6~3.7GHz	
대역폭	80MHz		100MHz	100MHz	
낙찰가	8095억원		9680억원	1조2185억원	

5G 주파수 할당 경매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상용화를 앞두고 이통 3사의 '5G 선점 마케팅'이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주파수 경매가 끝나자마자 자사 5G 브랜드인 '5GX'를 공개하는 등 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파수는 통신사업의 근간이라 불릴 정도로 이동통신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궁금증① 하루 만에 끝날 거라던 5G 주파수 경매 연장된 이유는? =이번 5G 주파수 경매는 당초 하루 만에 끝날 것이라 예상했다. 최저경매 가격과 매물로 나온 주파수가 역대 최고였던 만큼 이통사들이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을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무경을 열어 보니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틀째에 경매가 종료됐다. 이유는 5G 전국망 구축에 유리한 3.5GHz(가가헤르츠) 대역에서 3사 간 입찰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3.5GHz 대역은 총 280MHz(메가헤르츠) 폭이 경매에 나왔다. 정부는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한도(총량제한)를 100MHz 폭으로 한정했다. 자금력이 탄탄한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0MHz 폭을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LG유플러스가 3사 중 가장 작은 할당 폭(80MHz)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과 이익 모두 3사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데다 가입자당 주파수 보유량은 가장 많아 무리하게 5G 주파수를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였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경매 초반 90MHz 폭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경매에 나섰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갔다. 3.5GHz 대역의 총 낙찰가는 블록당 968억 원씩 총 2조9960억 원으로, 경매 시작가(2조6544억 원)보다 3416억 원 상승했다. 결국 LG유플러스가 경매 막판 80MHz 폭만 가져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실리를 챙겼다.

궁금증② 통신 사업에서 주파수가 그렇게 중요해? = 그렇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주파수다. 주파수가 '고속도로'라던 대역폭

은 '차선 수'에 비유할 수 있다. 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량·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보다 많은 폭을 확보하고 싶어 한다.

무선통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에 정보를 실어 전달하는 기술이다. 전파는 공기를 가르며 진동하면서 전달되는데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주파수다. 1초에 5번 진동하면 주파수는 5Hz가 된다.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300MHz에서 3GHz 사이다. 300MHz면 1초에 3억 번 진동한다. 무선통신의 속도는 이 대역의 주파수를 얼마나 넓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궁금증③ 과당 경쟁에 이기고도 손해? = 주파수가 통신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주파수 경매는 늘 과열 양상을 띠게 마련이다. 문제는 지나친 경쟁으로 너무 비싼 돈을 지불하는 바람에 경영이 악화하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8월 17일 한국에서 최초의 주파수 경매가 열렸다. 당시 매출은 4G LTE 서비스를 위해 800MHz 주파수 10MHz 대역폭, 1.8GHz 주파수 20MHz 대역폭, 2.1GHz 주파수 20MHz 대역폭 등 총 50MHz 대역폭이 대상이었다. 이 중 1.8GHz 주파수를 두고 SK텔레콤과 KT의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경매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SK텔레콤은 KT와 83라운드까지 승부를 벌여 전선만고 끝에 낙찰에 성공했다. 낙찰가는 경매 시작가(4455억 원)의 2배를 뛰어넘는 9950억 원을 기록했다. '황금 주파수'로 불린 일부 구간들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낙찰 이후 자금난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승자의 저주로 꼽힌다.

궁금증④ 주파수 할당 대금 어디에 쓰이나? =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긴다. 사업자가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사용

하면서 정부에 내는 돈, 즉 정부가 계획적으로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할 때 대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2016년 정부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받은 주파수 할당 대금은 1조1265억 원을 기록했다. 2011년 첫 경매 낙찰가는 1조6615억 원, 2013년은 2조4289억 원, 2014년 7410억 원, 2015년 1조175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이통사 무선 매출 기준으로 3~4%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시민단체와 이통사에서는 이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받은 돈을 통신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55대 45의 비율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편입된다. 발전기금에는 '통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실제 쓰이는 곳을 보면 통신 분야와 거리가 있다.

지난해 두 기금의 지출 예산은 연간 약 1조3797억 원. 기금 대부분이 연구 지원(52%, 7319억 원)과 방송 콘텐츠 육성(10%, 1368억 원) 등에 활용된다. 통신 이용자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15억9600만 원에 불과하다.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사이버 폭력 예방 지원 등에 들어가는 지원비까지 합쳐도 260억 원이다. 두 기금 지출 예산 전체의 1.8% 수준에 그친다.

궁금증⑤ 앞으로의 주파수 할당 계획은? = 정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통신을 위해 계속 주파수를 발굴하고 공급할 계획이다.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이통사들이 존재하는 한 경매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미 2016년 12월 자율주행차·인공지능(AI) 로봇·스마트 공장 등 미래 성장 기술을 위한 전용 주파수 마련을 골자로 하는 주파수 배분 계획 'K-ICT 스펙트럼 플랜'을 공개했다.

과거 정부가 두 차례 이동통신 분야의 주파수 공급 계획을 짰지만, 전체 주파수의 중장기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주파수를 모바일 사회로 전환하는 핵심 국가 자원으로 규정하고 5G·지능형 네트워크 등 신기술에 필요한 주파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0년 동안 40MHz 폭의 신규 주파수가 공급되며, 국내 주파수 영토는 올해 44MHz 폭에서 2026년 84MHz 폭으로 약 2배 넓어진다. 김범근 산업2부 기자 nova@

박병립의 중립, 직립 정치경제부 차장



삼정문란(三政紊亂)과 세제개편

세금의 사전적인 정의는 '국가의 필요한 경비를 위해 국민이 소득 일부를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다. 세금의 필요성은 알지만, 일단 거부감이 먼저 드는 등 세제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그다지 좋지 않다.

역사를 봐도 세금으로 민초의 삶은 고단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정문란(三政紊亂)이다. 조선 시대 주요 세금인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漕政) 등 세 가지 세금 체제가 변질돼 조세의 힘없는 백성은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정정은 땅의 크기와 그 땅의 생산량을 조사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정한 세금 부과가 어려웠고, 실제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군정은 군포를 내고 군대에 가지 않는 제도이다. 하지만 군포를 면제받는 편법이 등장하면서 군포가 줄자 가족, 이웃, 심지어 어린아이와 죽은 사람에게까지 징수했다. 환정은 농민에게 식량과 씨앗을 빌려주고 추수 이후 돌려받는 정책이다. 빌려준 곡식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빌려준 양의 10분의 1을 이자로 받다가 국가재정이 어려워지자 이자를 2분의 1까지 올렸다.

이 같은 삼정의 문란 등으로 인해 1811년 흥경래의 난, 1862년 농민항쟁 등이 일어났다. 가렴주구(苛斂誅求)나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는 '혹독한 세금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의 중국 고사성어이다.

다음 달 말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힘을 받은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고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보

유세 인상 등 증세론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의 빈부 격차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조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감소한 128만6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가계소득은 9.3% 증가한 1015만1000원으로 1000만 원을 돌파했다. 소득 하위 20%의 감소 폭과 상위 20%의 증가 폭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내년 예산·세제 개편안에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80%인 공적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액 결정 시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 인상안, 서울 인상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안 등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이며 관련 토론도 열린다. 전문가들은 공적시장가액비율 상향 방안이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덜 준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수입은 265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나라 입장에서는 곳간이 더 찻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간 것이다. 정부가 어떤 세제개편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크다. riby@

금융사는 봉사활동에 열심이다. 신뢰로 먹고사는 동네나 좋은 이미지를 쌓는 데 제격이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공공성에 맞는 역할이기도 하다. '따뜻한 금융'이라는 문재인 정부 기조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금융사들이 홍보하는 이유다.

얼마 전 한 금융사가 봉사활동 홍보 자료를 냈다.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농촌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이였다.

두 눈을 의심했다. 전 부서 직원들 가운데 신청자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특정 부서 임원과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나섰다. 직원들이 스스로 휴일을 반납한 건

기자수첩

이 세 하 금융부/shys0536@

금융사 봉사활동, 휴일 '자동'반납



지, 회사가 반납하게 한 건지 의문이 들었다.

다들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로 분주하다. 회식을 어떻게 할지, 사내 교육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휴일 봉사활동이 정말 '자발

적'이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그러나 사실상 강제성이 있었다면 말은 달라진다. 임원들이 나가는데 직원들이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봉사활동을 근무 연장선으로 보면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다. 노사가 더 일하겠다고 합의해도 연장 근무가 불가능

하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면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례업종이었던 은행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으로 7월 조기 도입을 논의해 왔지만 사실상 불발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집단협 조정을 신청한 상태. 노사는 전산(IT)과 운전 기사 등 직무에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인다. 유일하게 IBK 기업은행만 다음 달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휴일 봉사활동까지 나서서 금융사가 정작 내부 구성원에게 소홀한 모습이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김덕현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금융부 (02)799-2665	산업1부 (02)799-2648	산업2부 (02)799-2641	
자본시장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2643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사진팀 (02)799-2646			
광고접수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	
www.etoday.co.kr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크립토애셋, 암호자산 시대가 온다

CRYPTOASSETS

“암호화폐가 부종자산이 되는 시대가 온다!”
혁신적 투자자를 위한 블록체인의 암호화폐 투자 가이드

크리스 버니스크 · 팩터 데이터 | 고영훈 옮김 | 값 18,000원 | 비즈페이퍼

혼돈 속에 기회가 있다!

새로운 자산 ‘크립토애셋’을 준비하라!

아마존
투자 분야
1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포춘, 포브스
“최고의
경제경영서”

CNBC
“암호화폐
필독서”

“앞으로 모든 실물자산은 토큰화될 것!” 네드 스콧(블록체인 기반 SNS 스타트업 CEO)

“암호화폐는 온라인에서 금과 같은 역할!” 피터 뢰(메이발 공동창업자, 실리콘밸리 투자자)

“블록체인은 사회 전반적으로 거래구조를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 오세현(SK텔레콤 블록체인사업개발유닛장)

“암호화폐를 비롯한 전자지급수단 확대로 동전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가 오고 있다.” 김용진(기획재정부 차관)

홈페이지 chaeksesang.com | 페이스북 bizpaperbook

비즈 BIZPAPER
페이퍼

“하반기 IPO, 바이오 옥석가리기 필요”

1호 펀드 성공적 청산 ‘씨스퀘어운용’ 최종역 대표

설립 2년 만에 운용자산(AUM) 2500억 원을 끌어모은 신생 헤지펀드가 있다.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역발상 투자로 투자이익을 남기며 1호 펀드를 청산한 씨스퀘어자산운용이다. 연환산 10%대 목표수익률을 채울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1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난 최종혁 씨스퀘어운용 대표는 “우리 펀드는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매자인 투자자 기반 전략이었다”며 “초과수익을 올릴 기회를 잡는 게 중요했다”며 제약·바이오 투자에 뛰어든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의 첫 작품인 ‘씨스퀘어 메자닌플리스 전문사모투자신탁 1호’는 상장사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하며 공모주나 차익거래 등 멀티 전략을 병행한다. 최 대표가 2016년 당시 ‘한미약품 사태’로 기관투자자 사이에서 기피 업종이 된 제약·바이오주를 과감히 포트폴리오에 담은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최 대표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밸류에이션이 낮았지만, 정부 지원이 많고 우수

설립 2년 만에 2500억 유치 바이오기업 역발상 투자 적중 신약 개발 제약사 눈여겨 봐

인력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유망 산업이라고 생각했다”며 “기업을 고를 때는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가 실제로 있고, 신약 개발의 기회와 꿈이 있는 곳을 눈여겨 봤다”라고 밝혔다.

씨스퀘어운용은 바이오 회사들의 높은 변동성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장 전 주주 투자 대신 상장회사 CB 등 매자인 투자로 방향을 선회했다. 기술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실적이 부진해도 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최 대표는 하반기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과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신규 상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1호 펀드를 성공적으로 청산한 최종혁 씨스퀘어자산운용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날 “하반기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과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 “다만 시장 문턱이 낮아지다 보니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며 “기술력이 탄탄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올라올 예정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선 아이큐어, 올릭스, 이지바이오의 자회사인 유포팜의 성장성을 높게 봤다. 제약·바이오주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타업종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 그는 “투자

단가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 있다”며 “최근에는 여행주나 면세점 등 중국 소비 테마주와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엔터주와 미디어주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혁 대표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출신으로 유리지산운용, 마이다스 에셋자산운용 등을 거쳤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UN 기아퇴치 운동 적극 참여할 것”

윤홍근 외식산업협회장

국내 외식산업 대표단체인 한국외식산업협회(회장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가 유엔(UN)의 기아퇴치 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협회는 UN 세계식량계획(WFP)이 추진하는 기아퇴치 운동인 ‘제로 허unger(Zero Hunger)’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기금 모금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WFP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단체가 제로 허unger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모금에 나서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지난달 방한한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데 이어 이달 실무진 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했다.

회장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는 매년 치킨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WFP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비즐리 사무총장은 최근 협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 그는 “올해는 WFP가 한국과



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오른쪽)과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 사진제공 제너시스BBQ그룹

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은 WFP의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반대로 도움을 주는 주요 원조국으로 거듭나 세계 각국에 역할 모델이 되는 나라”라고 치하했다.

윤홍근 회장은 “낭비되는 음식물을 줄이는 것은 환경보호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발적 모금을 통해 세계적인 기아 퇴치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수만·방시혁 ‘세계 음악 리더’

대중문화 매체 ‘버라이어티’ 선정

이수만(66·사진 왼쪽) SM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방시혁(46) 박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미국 대중문화 매체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인더내셔널 뮤직 리더’에 뽑혔다.

20일 버라이어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음악시장을 재편할 계획인 제23인을 발표했다. 아시아 출신 경영자는 이수만·방시혁 프로듀서와 중국의 스킨리 디지브라미디어 대표, 세 명뿐이어서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버라이어티는 이수만 프로듀서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없는 K-팝 개척자”라며 “SM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공연한 엑소를 비롯해 아시아, 북남미 등 11개국을 투어한 그룹 슈퍼주니어의 소속사”라고 설명했다. 방시혁 프로듀서에 대해서는 “올해는 전 세계로 뻗어 나간 방탄소년단이 K-팝 그룹의 자리를 확고히 만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이스타 요리사 보투라의 식당

‘세계 최고의 식당’ 1위 꼽혀

세계 최고의 식당에 이탈리아 스타 요리사 마시모 보투라(사진)의 ‘오스테리아 프란체스카나’가 선정됐다.

19일(현지시간) 포춘은 2018 세계 50대 식당에 오스테리아 프란체스카나가 1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오스테리아 프란체스카나는 이탈리아 북부 모데나에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 식당이 “전통과 현대, 철학적인 요소와 익숙한 맛, 따뜻함과 과감함을 결합해 새로운 맛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 식당은 미슐랭(미쉐린) 가이드에서 별 3개 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인기 요리사인 보투라는 기아와 음식물 낭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2016년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촌의 잔반과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브라질 빈민가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유명해졌다.

이주혜 기자 winjh@

‘미투운동’ 기여 최영미 시인,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시 ‘괴물’서 고은 성추행 폭로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데 기여한 최영미 시인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1일 최영미(사진) 시인이 문학 창작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성적 불평등, 사회적 모순과 치열하게 대면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여성 인권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큰 시민단체와 개인, 기업을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성 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함께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권력 문제를 폭로해 ‘미투 운동’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로 시인 고은 씨의 삼승적 성추행을 폭로한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 Me too / 동생에게 벌린 실크 장장 상의가 구겨졌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성평등상 최우수상은 장애여성공감과 한국한부모연합이 받는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치료,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해왔다. 한국한부모연합은 한부모 가족 차별 해소와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냈다. 2012년 7월부터 6년간 매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에 참여해 무대 음향 운영, 설치물 제작 등 기부한 장상우 휴매니지먼트 대표는 우수상을 받는다. 김정용 기자 cogito@

BGF, 경찰청과 장기실종 아동 찾기

CU 매장에 예측 몽타주 게시

BGF가 ‘장기실종 아동’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경찰청과 힘을 모았다.

BGF는 부산지방경찰청이 제작한 장기실종 아동의 현재 모습을 예측한 ‘장기실종 아동 예측 몽타주’를 전국 1만3000여 CU 매장에 게시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실종 아동의 경우 실종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외모로 실종 아동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장기실종 아동 예측 몽타주는 실종 당시 아동과 부모의 사진, 현재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종 아동의 현재 모습을 예측했다.

농진청 ‘비만예방’ 논의 국제심포지엄 오늘 개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모여

비만 예방을 위한 식생활 방향을 논의한다. 농촌진흥청은 올바른 식생활 방향을 제시해 비만을 예방하고 국내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1일 서울 aT센터에서 ‘비만 예방을 위한 바른 식생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진청과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등이 주최하며 국내외 석학과 관련 산업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국가 비만관리 종합 대책’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 이어 비만과 식생활, 농업 소비 연계 방안 등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인사

◆국방부 <과장급 보임>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서기관 권대일 △전력자원관리실 군사관리관실 물자관리과장 서기관 유정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타입사업과장 윤태욱

◆한국은행 <국·부·실장 이동> △정책보좌관 홍경식 △공보관 김현기 △지역협력실장 윤상규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종식 △인사경영국장 전태영 △인재개발원장 강경성 △경제통계국장 박양수 △금융결제국장 민좌홍 △국제협력국장 김준환 △부산본부장 차현진 △대구경북본부장 원종석 △목포본부장 최낙균 △광주전남

본부장 이정 △대전충남본부장 오영주 △충북본부장 노영태 △강원본부장 서신규 △인천본부장 김현정 △경기본부장 김준기 △울산본부장 황상필 △강남본부장 양동성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김영태 △동경사무소장 김상기 △런던사무소장 성병희 △북경사무소 상해주재 강중구

◆한국서부발전 <보좌이동> △신성장사업단장 김순교 △태안발전본부장 권유환 △서인천발전본부장 김상도 △관리처장 정태호 △발전운영처장 최홍범 △발전운영처 발전운영실장 박대주 △발전기술처 기술사업화실장 임신민 △태안발전본부 제2발전처장 직무대행 박현철 △해의사업처 해외신재생부장 김성태 △신재생사업처 태양광사업부장 가재규 △관리처

인사운영실장 도형일 △관리처 인사운영실 인력개발담당부장 김선아 △관리처 계약재무부장 김태희 △관리처 총무부 본사 시설담당부장 김성신 △발전운영처 연료조달실장 강세훈 △발전운영처 연료조달실 연료지원담당부장 박용연 △발전운영처 발전기술처 엔지니어링담당부장 최봉열 △발전기술처 4차산업총괄부장 이상용 △발전기술처 국산화부장 문보현 △태안발전본부 9.10호기 건설관리실장 직무대행 이권우 △태안발전본부 부장 신은호 △군산발전본부 부장 조한권 △건설처 전기기획부 신규사업담당부장 직무대행 김명목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 학원장 유종일



LG하우시스가 6.25참전용사에게 주거환경 개선 관련 자재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제공 LG하우시스

LG하우시스, 6·25 참전용사 주거환경 개선 지원

LG하우시스가 호국보훈의 달 및 6·25전쟁 68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주거환경 개선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LG하우시스는 20일 충북 옥천군 청산면 하서리 마을회관에서 LG하우시스 최영각 옥산공장 생산담당, 제37보병사단 공병대대장 박경호 중령, 6·25참전용사 박만하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용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재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참전용사는 6·25전쟁 당시 백두산부대(21사단) 소속으로 참전

한 박만하 씨와 노도부대(2사단) 소속으로 참전한 이순종 씨 등 2명이다.

LG하우시스는 이들에게 자택 신축에 필요한 창호, 바닥재, 벽지 등 자재를 지원하고, 제37보병사단은 공병대대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해 이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자재 전달식에 참전용사 박만하 씨는 “기업과 군부대가 참전용사들을 기억해주고 힘을 모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 고맙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기아자동차 공동 설립자 가시오 가즈오 회장 별세

일본 전자계산기·기계업체인 가시오를 공동 설립한 네 형제 중 셋째인 가시오 가시오(사진)가 21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9세. 2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에 따르면 가시오 회장은 18일 오후 11시 35분께 도쿄의 한 병원에서 흡연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그를 비롯한 가시오 형제들은 세계 최초로 소형 순수 전기계산기를 개발해 1957년 가시오를 설립했다.

가시오 회장은 1988년 만행인 타다오의 뒤를 이어 3대 사장에 취임했다. 2015년에는 27년간 재직했던 사장직을 아들 가즈히로에게 물려주고 회장에 올랐다.

가시오 회장의 가장 큰 공로로는 개인용 계산기 ‘카시오 미니’와 시계 브랜드 ‘G-쇼크’가 꼽힌다. 1970년대 전후 대기업을 대거 잠깐 ‘계산기 전쟁’에서 8자리 이상의 숫자 표시가 상식으로 통했지만 가시오 회장은 과감히 이를 6자리로 변경하는 대신 가격을 기존 제품의 3분의 1로 억제해 카시오 미니를 히트시켰다.

배준호 기자 baehj94@

부음

▲김귀자씨 별세, 강호윤(서울북각삼계탕 대표)·명자(전 부산대 간호부장)씨 모친상, 정한유(비엔알에너지 부사장)·심수화(전 연합뉴스 상무이사)씨 장모상 = 20일, 부산시민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7시, 051-636-4444

▲윤대진씨 별세, 대중(MQ)디벨롭먼트홀딩스 차장)씨 부친상, 김종두(전 가천대길병원 비서실장)씨 장인상 = 19일, 가천대길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32-460-9402


▲이현구씨 별세, 이호영(산한ENI 이사)씨 모친상, 김석환(전 고향재무본부장)·김병재(전 이데일리 논설실장)·유인창(문화일보 편집부장)씨 장모상 = 20일, 서울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10시, 02-2072-2014

▲최영희씨 별세, 이형구(전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씨 부인상, 연복(우승정보대 사회복지교수)·창복(대전대문중학교 교사)씨 모친상, 한계연(대전유천초등학교 교사)씨 시모상 = 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07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하나금융그룹은 믿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을
각자가 아닌 하나된 힘을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분배 불균형 심화... '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세제개편안' 내달 말 발표

다음 달 말 발표가 예정된 2018년도 하반기 세제개편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소득 분배 및 고용시장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및 일자리 창출기업 세제 지원 외에 보유세 인상 등 세세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반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소득분배 악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올해 1분기 1분위(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8.0% 감소한 반면, 5분위(상위 20%) 가계는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일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해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내년 예산·세제 개편안에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및 고용증대세제 확대, 중·저소득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원액을 10% 인상하고, 기업이 채용을 1명 늘릴 때마다 1년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 바 있다. 또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소득 재분배 관련, 여당 발의 주요 세법 개정안



박광은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
-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 30대에서 20대까지 확대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 폐지
- 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 현행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 주택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전 구간에 대한 세율 인상



기발표 정부 대책

기획재정부(올해 4월 발표)
청년 일자리 대책 중 세제 관련 추진 과제

- 근로장려세제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
- 청년 창업 법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 고용 기업에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1분기 가계 동향, 하위 20% 소득 8%↓ 상위 20%는 9.3%↑ 양극화 20대까지 근로장려세제 확대하고, 기업에 고용증대세제 지원 추진 금융소득 분리과세 한도 낮추고, 중부세 인상 등 고소득층 증세안도

금을 올려준 기업에 대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정부는 4월 청년 일자리 대책 중 세제 관련 추진 과제로 근로장려세제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하고, 또한 청년 창업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며, 고용 기업에 고용증대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법안 발의가 한창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을 20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재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이 배우자 또는 유망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관련 시설투자를 촉진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정부 세제정책의 일관된 방향이 소득 재분배인 만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안도 내년도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회에도 여당발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박광은 의원 발의),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5월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70%에서 100%로 상향함과 동시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분야의 세제 지원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R&D 및 설비·투자세액 공제를 소폭 축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핀테크 등 유망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관련 시설투자를 촉진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정부 세제정책의 일관된 방향이 소득 재분배인 만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안도 내년도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회에도 여당발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박광은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하고 과표 6억 원 초과 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발의) 등이 제출돼 있다.

관련은 중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인상 여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위는 4월 출범 후 2개월여 동안 논의된 보유세 개혁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을 중심으로 단수 또는 복수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전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이나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 방안에 포함된 세제 관련 내용들을 위주로 개편안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작년과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소득구조 성장이나 분배구조 개선 등 큰 방향은 대체로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2018 여름방학 신나는 가족뮤지컬! So~Cool~

바다탐험대 옥토넷 · 불가사리의 모험

2018년 여름! 옥토넷이 돌아왔다!!

바다 탐험대 옥토넷

2018. 7. 13 금 ~ 8. 26 일 더케이아트홀(양재)

주최/주관 크리에이티브 베라, (주)엠플러스 제작 크리에이티브 베라
마케팅 (주)문화감성아트 예매 인터파크티켓 1544-1555 문의 02-766-9001

혁신성장 뒷받침 지원 방안은...

기업 투자 세액공제 문턱 낮추고 블록체인·핀테크 등 대상 확대

드론산업 투자 민간펀드 조성 지원 "대기업 세액공제를 상향" 목소리도

내달 말 발표될 예정인 2018년도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장 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혁신성장 분야의 세제 지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시설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설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각각 10%, 7%, 5%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용 비중 5% 이상 △2년간 상시근로자 수 증가 또는 유지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동력 R&D 비중 1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요건들은 엄격한 편이어서 많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적용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A기업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계획 중이라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2019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중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기술과 같은 유망 신기술을 추가할 방침이다.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가 열렸다.

현재는 11개 분야 157개 기술 R&D 비용을 대·중·중소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블록체인, 핀테크 기술 등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신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R&D 투자가 활성화되고, 투자위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제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혁신성장 촉진 방안들을 추진한다. 먼저 올 3분기 중 드론산업 투자에 특화된 민간펀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뛰어난 드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화가 쉽지 않은 기업들을 돕기 위함이다. 또 간편성공 핀테크 업체들이 연내에 전자자금이체업에 등록해 200만 원 이상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방법 및 기준 마련, 공공 빅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스마트시티 조성 시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지 규제 개선, 유망 창업기업 해외지점 설립요건 완화 등도 적극 추진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혁신성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줄어든 대기업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1-3%→0-2%)을 다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서병문 기자 sbg1219@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시나리오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공개가 압박했다. 현재 시장에선 조세 저항이 덜하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향 조정 등을 유력한 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한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 권고안에 전격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이달 22일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연구위원과 재정개혁특별위 최병호 위원이 발제에 나선다. 재정특위는 이달 안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전체 회의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2016년 기준으로 재산세는 9조 9000억 원, 종부세는 1조 5000억 원으로 재산세가 종부세보다 6배 이상 많다. 이번 권고안에는 공시지가 조정, 종부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단수 또는 복수의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5~2.0%의 세율을 부과한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재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서울 인상

구간별 세율 높여 직접적 보유세 인상
법 개정 필요·야당 반대 등 난제 산적

공시지가 현실화

과세표준 높아져 보유세 간접 인상 효과
재산세 올라 1주택 서민들도 부담 증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만 적용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등 부동산에 매겨진 공시지가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결국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이라는 3가지 변수가 재정특위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다.

우선 세율 자체를 올릴 수 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5개로 나눠 0.5~2.0% 세율을 매기고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 보유세 인상 효과를 보려면 구간별 세율을 높이면 된다. 세율을 올리면 보유세 인상 효과를 가장 직접 볼 수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정책 주도권을 쥐게 된 정부와 여당이 세율 인상 등 과감한 개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



편을 추진할 것이라 관측이 있는가 하면, 참여정부 시절 세금 폭탄 논란으로 못매를 맞았던 트라우마 탓에 소폭의 선별적 인상을 택할 것이라 전망과 야당의 반대 등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시가격 조정의 경우 현재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지를 현실화할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져 간접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공시지를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도 함께 오르는 만큼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상승으로 올해 공시지가는 이미 많이 올랐다. 또 올린 세금 부담이 크다는 반발을 사게 된다. 공시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재산세도 함께 오른다.

집 하나 있는 서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향 조정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데다 법률 개정 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주택 및 토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로 동일하다. 이를 개편해 90~100%까지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10%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 증대 효과는

3059억 원, 이를 100%로 20%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 증대 효과가 62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초다주택자로 분류되는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추가 과세도 검토된다. 2016년 기준 전체 다주택자는 195만6000명인데 이 가운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39만2000명에 달한다.

국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해 초 발의했다. 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는 내용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에 방점을 뒀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법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개편도 중요하지만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기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구체적인 조세개혁 로드맵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계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aood@



“경제 흐름 맞춰 세율 조정해야” VS “소득 불균형 완화 디딤돌 돼야”

‘세계 개편’ 전문가에 들어보니

정부의 세계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에선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세율을 올리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며 “민간경제가 살아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세금을 올리면 민간경제가 그만큼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는 정부가 어떻게 이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혁신성장이라는 것도 결국 기업 경영환경을 육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 고려 신중한 조세 정책”

세금 올리는 만큼 민간경제 위축
무차별적 보유세 인상 역효과 우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급격한 세제 변동은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조세가 전가될 수도 있고 시장에 자금이 회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세액공제 확대에는 “작년에 법인세를 올렸으니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향이 맞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기류도 아닌데 보유세 문제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무차별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나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유세를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앞서 조정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또 “세금이나 모든 제도는 경제 전반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가 세계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율도 경제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식 간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은 국민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겨우야 한다”며 “조세는 자연스럽게 유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겨우야지, 투기 억제나 소득 재분배를 위해 겨우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급진적인 증세로 시장이 흔들리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그는 “세율을 높이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기업이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줄인다”며 “세율

“소득 재분배 가능한 증세 검토”

소득세·법인세·누진세율 등 강화
자영업·중소 세금 부담 완화 필요

을 낮춰야 기업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경기도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세계 개편의 첫걸음은 소득 불균형 완화”라며 “조세의 분배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직접적 감면이든 중당금, 준비율 설정 같은 간접적 방법이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취약계층 감세에 따른 세입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증세를 담으로 제시했다. 안 교수는 “누진세율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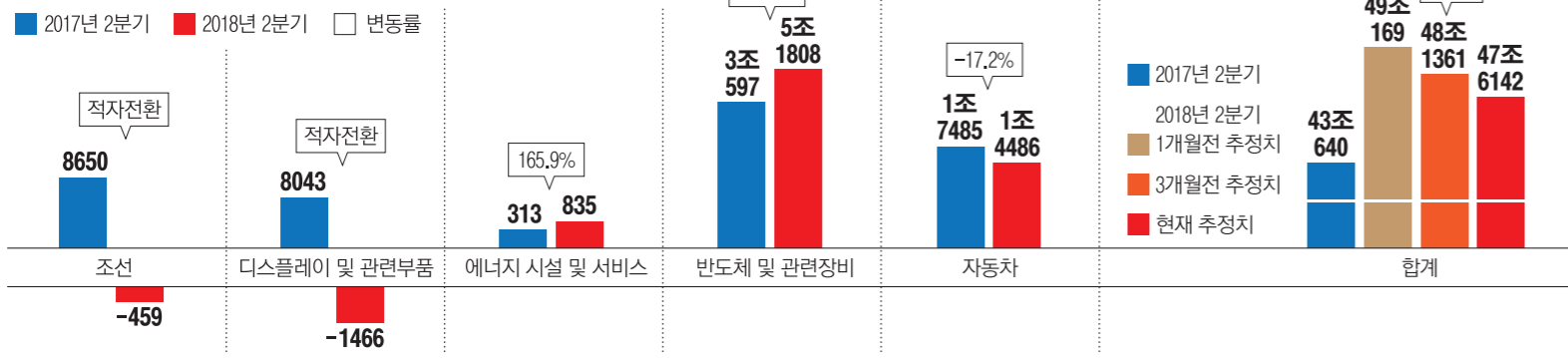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수익률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지침에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보장(예금·예금보험공사)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타트업 매개수수료 [주식] 0.15% + (전환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스피 주요 업종별 2분기 컨센서스 추이

(단위: 억 원, IFRS 연결기준, 컨센서스는 추정기관수 3곳 이상) ※출처: FN가이드



2분기 상장사 실적 전망 ‘흐림’

주요 상장사 컨센서스 살펴보니

미·중 무역분쟁, 원화 약세, 바이오주 급락 등으로 코스피주수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컨센서스)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과 함께 일부 업종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분석한 코스피 상장사 147곳의 2분기 매출액은 444조4446억 원, 영업이익은 47조6142억 원이다. 전년 동기 매출(422조3373억 원) 대비 5.2% 상승, 영업이익(43조 640억 원)은 10.6% 늘어난 수치다. 주목할 대목은 3개월, 1개월 전에 전망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보다 각각 2.9%, 1.1% 하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부 업종의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중국의 공세와 사업 구조 변화 과도기에 맞물

매출·영업의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3개월·1개월 전 전망치보다 하향조정

디스플레이·조선·전력업종 ‘적자전환’ 반도체·에너지·게임 ‘깜짝실적’ 예고 일부 업종 쏠림현상 심화 불안감 여전

리며 이종고를 겪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종의 2분기 추정 영업손실은 1466억 원이다. 조선과 전력도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으며, 자동차(-17.2%), 무선통신(-9.4%), 인터넷서비스(-6.4%) 업종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하락했다.

반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업종은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조1808억 원으로 대비 69.3% 늘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등으로 수혜를 입고 있는 에너지 시설 및 서비스를 비롯해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업종도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각각 165.9%, 86%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분기 코스피 업종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5% 내외로 이익 증가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지난해 2분기 이익 증가율이 대략 10% 이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닝스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아직까지 감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일부 업종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 “3분기도 경기 사이클이 꺾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익 증가는 되겠지만 올해 초 예상했던 10%대 이익 증가율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엔 기자 yerin2837@

MLCC 호황 공급부족 현상 삼성전기 52주 신고가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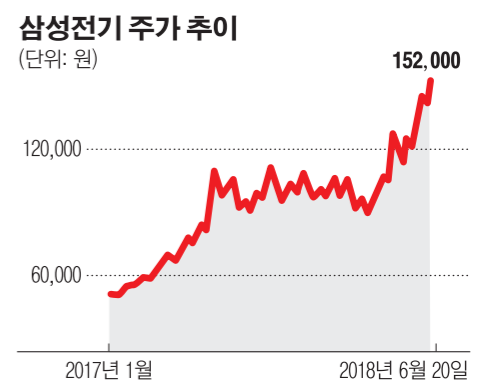
1분기 관련 매출액 49% 증가 삼화콘덴서도 역대 최고가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기와 삼화콘덴서 주가가 치솟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삼성전기는 전일 대비 1만 원(7.04%) 오른 15만2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증가 기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2010년 7월 19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15만9500원에 근접한 수치다. 삼화콘덴서 역시 8100원(9.43%) 오른 9만4000원에 장을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MLCC의 ASP(평균판매단가)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MLCC 생산업체들의 전장용 MLCC 투자 확대로 전장 MLCC 공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장용 MLCC는 IT 용보다 수익성이 좋지만 양산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삼성전기의 MLCC 매출액은 대부분 하이엔드(high-end) IT제품용에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MLCC 수요가 5G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폰 등 IT기기 고사양화에 따라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기도 하반기부터 전장용 MLCC 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2020년 30%까지 비중을 늘릴 전망이다.



지난해 MLCC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는 삼성전기 컴네통솔루션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2조35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2% 늘었다. 올해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3조2000억 원을 웃돌아 지난해보다 약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화콘덴서도 MLCC 호황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올해 1분기 MLCC 매출액은 2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9% 늘었다. 김정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증설이 완료되면 수량 기준 MLCC 생산능력은 지난해보다 50% 증가할 전망”이라며 “전장용 MLCC 비중도 20% 후반대까지 확대되면서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호 기자 minori3032@

무디스 “삼성증권 제재, 신용등급에 큰 영향 없을 것”

“제재수위도 시장서 거론되는 ‘일부 영업정지’ 수준” 전망

금감원, 오늘 심의위 열고 삼성증권 제재안 논의 예정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21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삼성증권의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재 수위 역시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옥태중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무디스의 미디어 브리핑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제재는 일시 영업정지 정도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신규 고객 유치 금지 등 수준에서 결론이 난다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옥 연구원은 삼성증권에 내려지는 금융당국 제

재가 시장에서 거론되는 일부 영업정지 수준을 넘어서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예상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나올 경우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받을 기관 제재 수위가 기관경고부터 일부 영업정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조치일로부터 향후 1년,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제재안을 다룰 예정이다.

4월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조합 배당 작업 중 주당 ‘1000원’이 ‘1000주’로 잘못 입력되면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무디스는 15일 삼성증권의 장기 기업 신용등급은 ‘Baa1’으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과거 삼성증권의 사업 방향이 저(低)리스크를 지향했으나 최근 리스크 자산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삼성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기업신용공여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자산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디스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증권산업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경제 환경과 개인투자자의 위험자산 투자 확대가 한국 증권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무디스는 이와 함께 한국의 ‘Aa2’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미래에셋+네이버 투자 키워드는 ‘부동산·벤처·핀테크’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1년간 준비한 공동 투자 청사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6월 상호 5000억 규모 지분 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깜짝 발표했다. 구체적인 사업과 전략 구성은 비밀리에 진행해 왔다. 이후 8개월이 지나서야 두 회사는 투자 대상과 사업 형태를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2월부터 최근까지 공개한 제휴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투자 키워드는 크게 부동산, 벤처, 핀테크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2월 네이버는 향후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 차원에서 미래에셋대우의 부동산 투자 펀드(사모)인 ‘미래에셋맵스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62호’에 1963억 원(지분 45.1%)을 출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이 펀드는 판교 알파돔시티의 6·2구역 신규 개발 부지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말 설립됐으며 총규모는 4109억 원이다.

3월에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본격화했다. 양사는 지분을 50%씩 공동 출자해 20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미래에셋 네이버 아시아그로스 사모투자합자회사’를 결성하기로 했다. 또 각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최근 급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커머스, 인터넷 플랫폼, 헬스케어, 소비재, 물류 등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방침을 세웠다. 펀드 규모도 최대 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핀테크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20일 네이버페이에서 미래에셋대우 CM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CMA 계좌는 은행보통예금처럼 수시입출금이 가능해 단기자금 재테크용으로도 활용된다. 또 개설된 CMA 계좌를 간편결제계좌로 등록해 놓으면 우대금리 혜택은 물론 쇼핑까지 가능하다.

하유미 기자 jscs508@

4차 산업혁명에는 경제와 산업,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 시대 최고의 공유 경제 전문가가 제시하는 명쾌한 해답

‘소유’가 사라진다.
‘고용’이 사라진다.
‘대기업’이 사라진다.

극단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경제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소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살게 된다. 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되기보다 독립적 근로자로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경제의 주체가 대기업에서 소기업 또는 개인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공유 경제의 권위자 아룬 순다라라잔 교수가 이 책에서 보여주는 미래 경제의 단면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교통, 호텔, 은행을 비롯해 모든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다. 이 책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경제를 형성하는 힘에 관한 통찰력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 할 베리안 구글의 수석 경제학자

공유 경제는 우리가 맞이할 운명이다. 지금까지는 공유 경제가 비즈니스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변화의 파도는 곧 찾아올 것이다. 아룬 순다라라잔의 책보다 이 변화에 대한 더 좋은 지침은 없다. — 에릭 브라운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아룬 순다라라잔 지음 | 이은주 옮김 | 16,800원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라이트론 5G 광모듈 개발, 상용화 가속도

기가레인, 10Gbps 대역 'RF커넥터' 제조... "28nm까지 확대" 이통사 5G 주파수 경매 마무리되면서 통신장비업체 주목

광통신 부품 제조업체 라이트론이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5G 광모듈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가레인 또한 5G 관련 제품 개발 준비를 마치면서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21일 라이트론 관계자는 "독자 기술인 쿨드(Cooled) 광모듈을 5G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을 끝낸 상태"라며 "향후 시장 구축에 따라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쿨드 광모듈은 냉각과 가열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광모듈이다. 라이트론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이동 시장의 선점과 동시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의 확대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광통신 전송 장비에 사용되는 텔레콤-데이터콤(Telecom/Datacom)용 광모듈은 전 세계 시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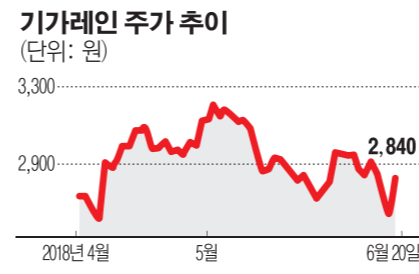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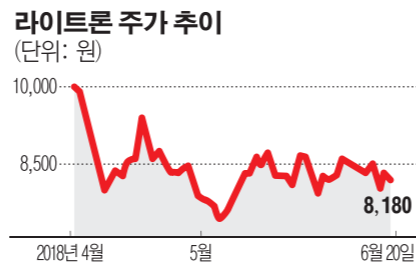
규모가 2017년 약 18억 달러(약 2조 원)와 비교해 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

앞으로 지속적인 초고속용 모듈 개발로 2018년까지 세계시장의 약 0.5~1%의 점유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쿨드 SFP(Cooled SFP) 제품이 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유럽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텔레콤-데이터콤용 광모듈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Gbps 대역 이상의 RF커넥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가레인과도 제품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날 기가레인 관계자는 "5G 네트워크에서 활용되는 주파수는 6GHz를 시작으로 향후 10GHz, 나아가 28GHz 까지 확대될 전



망"이라며 "기가레인은 국내에서 10Gbps 이상의 RF커넥터를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5G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3월 5G 상용화를 대비한 본격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이른바 이달 말부터 5G 장비업체 선정에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망구축비에 각 사별로 최소 5조~6조 원, 3사 통틀어 4~5년간 최대 30조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 신호를 중계하기 위한 통신장비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5G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올리기 위한 핵심 기술인 빔포밍

(beamforming)을 구현하기 위해, 하나의 통신장비당 들어가는 안테나의 숫자와 이를 연결하는 RF커넥터의 숫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다.

통신장비 수 증가에 통신장비 내 RF커넥터 증가로 기가레인 제품인 RF커넥터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회사 측 전망이다.

기가레인은 국내 최대 전자통신 장비업체에 4G용 RF커넥터비치를 공급했다.

추기적인 4.5G 통신장비 수주를 대기 중에 있는 기가레인은 선도적으로 4.5G 제품을 납품한 만큼 5G에서도 향후 가장 많은 물량을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브레인콘텐츠 '스와니코코' 인수 56조 중 화장품 시장 본격 공략

지분 70% 매입, 경영권 양수 "기업가치 제고 박차 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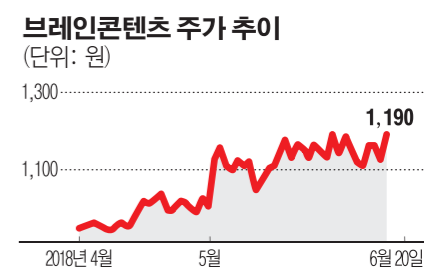
브레인콘텐츠가 바이오 줄기세포 기술로 만든 천연화장품 국내 1위 기업인 주식회사 스와니코코를 인수하고 화장품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브레인콘텐츠는 스와니코코의 지분 70% (15만4420주)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인수 금액은 총 233억 원 규모다.

2010년 설립된 스와니코코는 천연물 추출 원료를 기초로 한 185개 품목을 보유한 화장품 전문기업이다. 천연 식물성 분 배합기술 등을 적용한 백조쿠션, '갯잇뷰티 뷰티벨' 1위 제품인 펨타이드 아이크림 등이 시장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스와니코코는 작년 매출액 180억 원, 영업이익의 19억7000만 원을 기록했다. 2018년 5월에는 약 20억 원의 월간 매출액을 기록해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며,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올 한 해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유통채널에 대한 외부 의존도가 높은 타사와는 다르게 스와니코코는 자체 뷰티 플랫폼을 통한 제품 판매가 전체 매출액의 65% 이상 차지하고 있다.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충성도 높은 마니아 층을 확보했다는 방증이다.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 역시 높다.



브레인콘텐츠는 인수 이후 56조 원 중국 화장품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다.

장대웅 브레인콘텐츠 대표이사는 "당사의 자회사인 GTF는 국내 텍스리펀드 1위 기업으로 유니온페이, 텐센트, 알리페이 등 중국 기업들과 탄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국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인수로 당사와 GTF는 전략적 사업 연계를 통해 56조 중국 화장품 시장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연 원료에 대한 신뢰성과 '가성비', '가심비' (마음에 위안을 주는 상품)를 모두 잡은 스와니코코의 제품 경쟁력은 중국시장 내 신(新)소비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20~30대 소비자에게 어필하기에 충분하다"며 "브레인콘텐츠는 K뷰티 전문 플랫폼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와니코코는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에 입점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 신라면세점 입점을 앞두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에이치엘비, 美서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 병용임상

반응률 얼마나 오를지 관심

에이치엘비는 자회사 LSKB에서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대표적인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와 병용 요법 임상시험을 미국에서 개시했다.

21일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비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리보세라닙'이 '키트루다' 반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임을 기대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암학회 ASCO 2018에서 발표된 논문 초록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키트루다'와 같은 PD-1 계열의 면역항암제 'SHR-1210'과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 결과, 비소세포폐암에서 41.2%, 간암에서 54.5%의 반응률을 확인한 것이다. 면역항암제는 급속한 생존율 개선효과를 보이지만 그 대상이 제한적이다.

'키트루다'는 2017년 38억9000만 달러 (한화 약 4조1000억 원)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항암제이지만 같은 이유로 반응을 상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반응률이 가장 높은 흑색종에서 약 33%가량의 반응률을 보이고 있으며, 바이오마커로 PD-L1 발현이 높은 경우라도 반응률은 30%에 불과하다.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 유타대학교의 헨츠만 암센터(Huntsman Cancer Institute, University of Utah)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며, 약 12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2상 시험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병용 임상시험을 통해 PD-1 계열의 대표적인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의 반응을 '리보세라닙'이 얼마나 상승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에이치엘비 관계자 "항암치료 분야에서 리보세라닙 단독 처방에 이어, 강력한 병용 제제(파트너 약물)로서도 대표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씨티젠, '난소암 진단키트' 투자

글라이칸엠티와 공동 판권 계약

씨티젠에서 사명을 변경한 씨티젠이 진단키트 개발기업과 투자 및 공동 판권 계약을 맺었다.

씨티젠은 의료용 진단키트 개발기업 글라이칸엠티와 난소암 진단키트에 대한 투자 및 공동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글라이칸엠티는 난소암 진단키트 개발

자인 충남대 안현주 교수와 관련 임상의 등으로 구성된 바이오 기업이다.

이 회사는 이번 씨티젠의 지분 투자를 통해 8월 한국보건연구원에 난소암 진단키트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 식약청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제 품 허가 및 출시가 완료되면 씨티젠은 국내 공동 판권을 보유하게 된다.

난소암은 진단과 치료가 모두 까다로

2018년 6월 19일(화)



씨티젠 대표이사(왼쪽)와 글라이칸엠티 대표이사(오른쪽)가 계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위 유방암, 자궁경부암과는 달리 선별검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난소암 환자

10명 중 7명은 발견했을 때 3기 이상 판정을 받으며 늦게 발견된 만큼 치료나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이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난소암 진단 기술은 특이성과 민감도가 낮아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조직검사 등을 이용할 경우 진단율은 높일 수 있으나 시간, 인력 및 비용 등이 발생해 새로운 난소암 진단 마커의 발굴이 요구된다.

글라이칸엠티의 진단키트는 혈액을 이용한 당사슬(Sugar Chain) 진단 기술로 높은 진단율, 짧은 진단 시간, 적은 비용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최두선 기자 sun@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8년 6월 21일, 08: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전일대비 등락(%)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전일대비 등락(%)
비트코인캐시	983,000	-21,000	(2.1% ▼)	모네투	134,900	-5,000	(3.6% ▼)
리플	596	-12	(2.0% ▼)	비트코인골드	34,650	-2,050	(5.6% ▼)
라이트코인	108,000	-500	(0.2% ▼)	이더리움 클래식	18,180	860	(5.0% ▲)
대시	291,500	-500	(0.2% ▼)	퀵텀	11,420	-450	(3.8%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절대!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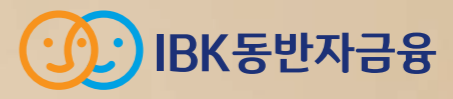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전문 연예뉴스
비즈엔터
2013년 10월 15일 오픈



한반도에 뿌려진 평화의 씨앗이 남북경협이 줄기와 뿌리로 뻗어나가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중소기업 근로자와 함께 기원합니다.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어린이집 설립

“일하는 엄마도 행복해”

아이 손잡고 출퇴근하고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달려가서 보고
야근도 맘 편히 하고 싶었던 중소기업 직장맘을 위해
IBK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전용 직장 어린이집’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더 많은 곳에서 직장맘들과 함께
더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중소기업 전용 직장 어린이집 1호점
IBK남동사랑 어린이집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